

2023-9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SN 2982-8317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32

1. 미국 - 가정용전기기기 33
2. AP(Application Processor) 39
3. Ex-Briefing 46

III. 부록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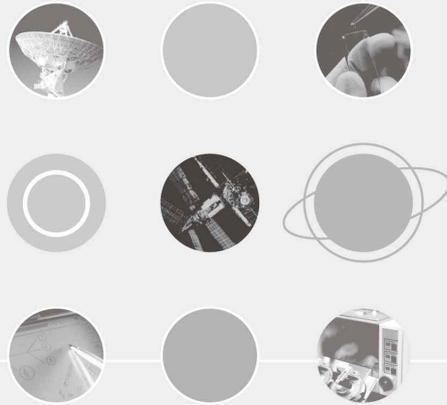
1. ICT 생산 통계 51
2. 2023년 8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52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9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7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8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3.8월 ICT 수출은 160.5억 달러(△16.7%), 수입은 110.7억 달러(△18.1%) 기록

- (수출)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한 160.5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하락
 -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 휴대폰, 이차전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하락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일본은 상승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미국, EU 등은 감소를 기록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체
전세계	86.4 (△21.1)	21.3 (1.8)	9.9 (△12.2)	6.6 (△47.4)	7.4 (△21.2)	160.5 (△16.7)
중국(홍콩)	45.6 (△20.6)	5.5 (△20.8)	5.7 (△13.0)	1.9 (△47.0)	0.5 (△26.2)	65.5 (△20.6)
미국	4.3 (△45.1)	0.2 (22.0)	0.8 (34.5)	1.7 (△64.9)	3.5 (△11.8)	16.5 (△29.5)
일본	1.2 (3.2)	0.1 (△42.1)	0.7 (331.1)	0.3 (△18.7)	0.4 (14.9)	3.8 (13.0)
EU	2.4 (12.2)	0.4 (△49.9)	0.3 (△60.0)	1.0 (△39.3)	1.4 (△47.2)	8.4 (△20.0)
베트남	10.8 (△17.6)	13.5 (22.3)	1.3 (△10.6)	0.5 (55.0)	0.2 (△46.8)	30.5 (1.7)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한 110.7억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
 - 이차전지(7.3억 달러, 11.3%↑)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52.8억 달러, △21.5%), 컴퓨터 및 주변기기(10.1억 달러, △23.9%), 휴대폰(5.6억 달러, △43.5%), 디스플레이(4.1억 달러, △0.2%)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27.6억 달러), 베트남(19.8억 달러), 미국(9.6억 달러), EU(2.6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총 49.8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분 (억 달러, %)		2023년		2022년	
		8월P	1~8월P	8월	1~8월
수출	전체 산업	518.7 (△8.4)	4,093.5 (△12.4)	566.1 (6.5)	4,673.6 (13.5)
	ICT	160.5 (△16.7)	1,155.7 (△28.2)	192.7 (△4.8)	1,610.3 (12.8)
수입	전체 산업	510.0 (△22.8)	4,333.2 (△12.1)	660.3 (28.0)	4,927.2 (26.0)
	ICT	110.7 (△18.1)	907.1 (△10.3)	135.2 (18.7)	1,011.7 (18.3)
무역수지	전체 산업	8.7	△239.7	△94.2	△253.6
	ICT	49.8	248.6	57.5	598.6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메모리·비메모리 동반 하락으로 올 반도체 시장은 위축이 예상되나 내년엔 반등 전망

- (시장 전망) 메모리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메모리까지 역성장하면서 '23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2.3% 하락한 5,25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Gartner, '23.6월)
 -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IT 수요 약세가 소비자에서 기업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감소까지 더해지는 등 부정적 요인이 겹치면서 '19년(4,223억 달러, △11.3%) 이후 처음으로 하락할 전망
 - ※ 올해 주요 10개 반도체 업체(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TSMC·UMC·글로벌파운드리·마이크로테크놀로지·인피니온·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웨스턴디지털·키옥시아)의 투자액은 전년 대비 16% 하락한 1,220억 달러를 기록하며 '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예상(니혼게이자이신문, '23.8월)
 - (메모리 반도체 : 850억 달러, △40.6%) 과잉재고에 따른 가격 하락세 지속,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축소에 따른 서버向 수요 감소 등 업황 둔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낙폭 확대를 예상. 이에 따라 '16년(805억 달러, 1.6%↑)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하회할 전망
 - (비메모리 반도체 : 4,409억 달러, △3.4%)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나,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스마트폰·PC 등 주요 수요처의 주문이 축소. 이에 따라 오름세를 지속하던 비메모리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등 역성장 예상
 - ※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단위 : 억 달러) : ('19년) △0.2% → ('20년) 10.8%↑ → ('21년) 24.8%↑ → ('22년) 5.5%↑ → ('23년E) △3.4% → ('24년E) 8.4%↑
 - 다만 전기차·자율주행차 및 생성형 AI 보급 확대에 따른 차량용·AI용 수요 증가, 주요 업체의 감산 효과 가시화에 따른 수급 환경 개선 등으로 메모리·비메모리가 반등하면서 내년엔 성장을 기대
 - ※ 차량용 및 AI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Gartner, '23.1월 및 7월) : (차량용) '22년 22.0%↑ → '23년 12.5%↑ → '24년 18.2%↑, (AI) '22년 30.3%↑ → '23년 20.9%↑ → '24년 25.6%↑

그림 1-1 | 전체 반도체 시장 및 메모리 품목별 수급 전망 추이



자료 : Gartner, 2023.6. 및 2023.7.

□ 가격 회복 지연에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반등하며 선전

- '23.8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D램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낸드플래시는 동일한 가격 수준을 유지(Dramexchange, '23.8월)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전방 수요 부진, 공급 과잉 등에 따라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 또는 보합을 반복하며 뚜렷한 회복 기조는 부재한 상황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 기준)은 '16년 말 집계 시작 후 처음으로 '23.1월(1.81달러, △18.1%) 1달러 대로 하락. 이후 3월까지 보합을 기록했으나 4월(1.45달러, △19.9%) 하락을 시작으로 8월(1.30달러, △3.0%)까지 5개월 연속 내림세 지속
 - ※ D램(DDR4 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3.1월) 1.81달러, △18.1% → (4월) 1.45달러, △19.9% → (5월) 1.40달러, △3.4% → (6월) 1.36달러, △2.9% → (7월) 1.34달러, △1.5% → (8월) 1.30달러, △3.0%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 범용제품(MLC 128Gb 기준)은 '19.7월(4.01달러, 2.0%↑)부터 4달러를 상회했으나 '23.3월(3.93달러, △5.1%) 3달러 대로 하락. 4월(3.82달러, △2.8%)까지 감소 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보합세 기록
 - ※ 낸드플래시(MLC 12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2.10월) 4.14달러, △3.7% → ('23.3월) 3.93달러, △5.1% → (4월) 3.82달러, △2.8% → (8월) 3.82달러, 0.0%
 - 다만 스마트폰·PC 등 세트 업체의 반도체 재고 조정 마무리, 주요 업체들의 감산 효과 가시화 등으로 수급 상황이 정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메모리 가격 회복을 기대
 - ※ D램 가격은 HBM(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 확대와 기존 제품 생산량 감소가 맞물려 '23.4분기 17.8%(전 분기 대비)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낸드플래시는 주요 업체들의 감산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IT 수요 부진, 중국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24.1분기에나 8.9% 성장하며 반등 전망(Gartner, '23.7월)
- 매출 하락세를 이어오던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3.2분기에 전분기 대비 반등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를 수성
 - D램·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글로벌 경제 위기, IT 시장 부진,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22.2분기 이후 내림세를 지속했으나, AI 시장 성장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23.2분기 상승 전환
 - **(D램)** 주요 데이터센터의 AI向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량 고사양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23.2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0.4% 증가한 114억 2,800만 달러를 기록(TrendForce, '23.8월)
 -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8.6% 증가한 4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켜냈으나 점유율은 ('23.1분기) 43.9% → (2분기) 39.6%로 4.3%p 감소
 - SK하이닉스는 HBM·DDR5 등 고부가 제품 출하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요 업체 중 최대 성장률(48.9%↑)을 기록하며 마이크론을 제치고 2위를 탈환하는 등 시장 회복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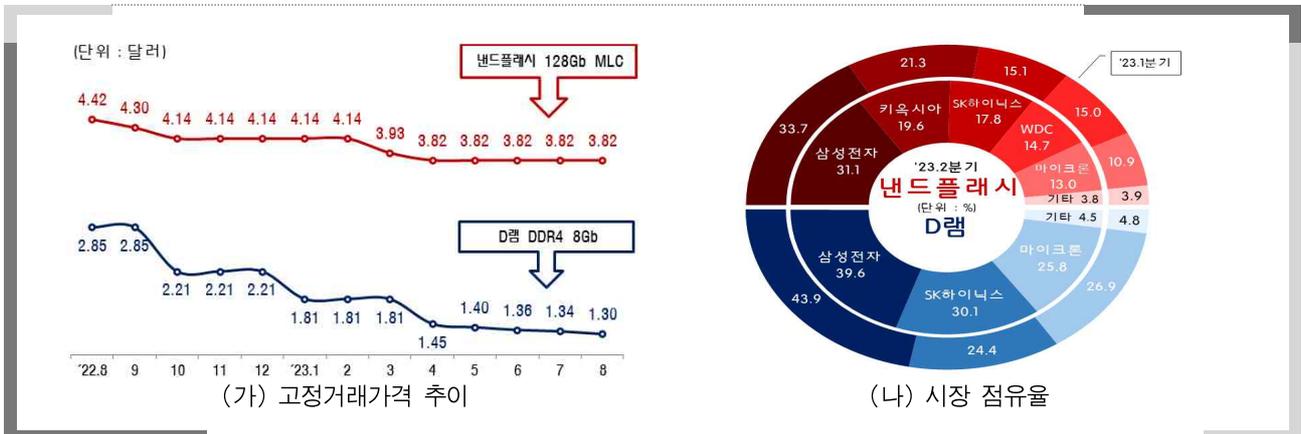


※ '23.2분기 D램 주요 업체 매출액(단위 : 억 달러) : (1위, 삼성전자) 45.3, (2위, SK하이닉스) 34.4, (3위, 마이크론) 29.5

- (낸드플래시) 주요 업체의 출하량 증가 등에 따라 '23.2분기 전 세계 낸드플래시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7.4% 증가한 93억 3,820만 달러를 기록(TrendForce, '23.9월)
- 업체별로는 삼성전자(Δ1.0%)·키옥시아(Δ1.3%)가 소폭 감소하는 등 부진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2위에 자리매김하며 최상위권을 유지
- 한편 북미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 SSD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성장 (26.6%↑)을 기록한 가운데 WDC(5.4%↑)·마이크론(27.6%↑)도 호조 달성

※ '23.2분기 낸드 주요 업체 매출액(단위 : 억 달러) : (1위, 삼성전자) 29.0, (2위, 키옥시아) 18.3, (3위, SK하이닉스) 16.7, (4위, WDC) 13.8, (5위, 마이크론) 12.1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및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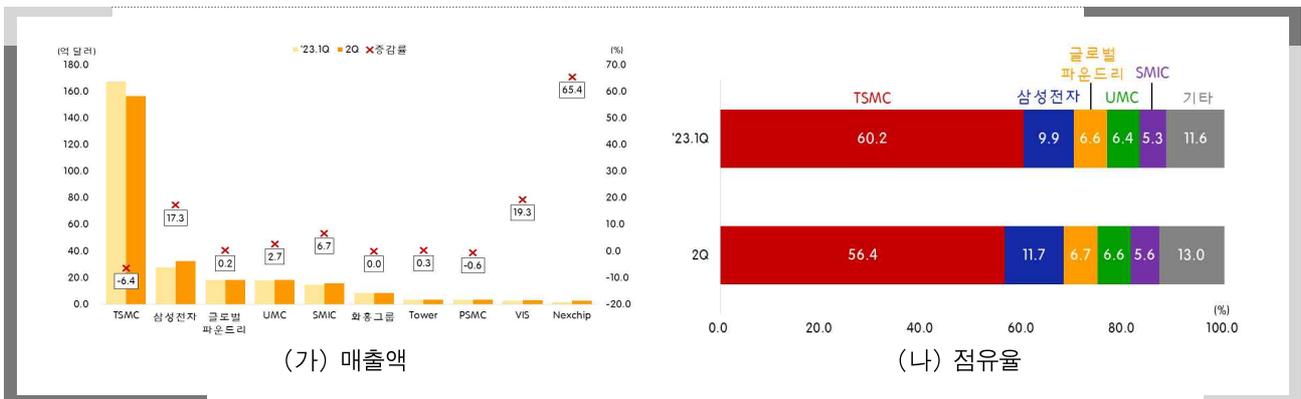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3.8. / TrendForce, 2023.8. 및 2023.9.

□ '23.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삼성전자가 선전하며 TSMC와의 점유율 격차 축소

- '23.2분기 TSMC 매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두 업체의 파운드리 시장 내 점유율 차이가 축소(TrendForce, '23.9월)
 - (TSMC) 6nm·7nm 공정이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4nm·5nm 등 최첨단 공정 실적 악화 등에 따라 전 분기 대비 6.4% 감소한 156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점유율도 하락. 다만 여전히 압도적 점유율(56.4%)로 시장 1위를 굳건히 유지
 - (삼성전자) 최첨단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른 경쟁력 확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7.3% 증가한 3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1.8%p 증가함에 따라 10% 대로 회복에 성공
 - ※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은 4nm가 75% 이상, 3nm가 6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3~5nm 수율을 개선했으며, 업계 최초로 차세대 기술인 GAA(Gate All Around)를 적용한 3nm 공정의 도입 및 양산을 시작하는 등 초미세 공정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조선일보, '23.9월)

- 이에 따라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23.1분기) 50.3%p → (2분기) 44.7%p로 감소. 다만 3분기에는 아이폰15 시리즈 신제품 출시('23.9월)에 따라 애플을 고객사로 둔 TSMC의 호조가 예상되면서 격차는 다시 확대될 전망
 - ※ '23.2분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TV 등의 부품 재고 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주문량이 증가했으나, 3분기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폰·PC 등 전방 수요 약세 등으로 '23.2분기 전 세계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1.1%)한 262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내림세 지속
 - ※ 전 세계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는 TSMC,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 UMC, SMIC, 화흥반도체, Tower, PSMC, VIS, Nexchip으로 전체 매출액의 95%를 차지
- 다만 AI 시장 성장에 따른 HPC(고성능컴퓨팅)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 주문 확대 등으로 3분기 상승 전환을 기점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그림 1-3 '23.2분기 주요 파운드리 업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자료 : TrendForce, 2023.9.

2) 수출 동향

□ '23.8월 반도체 수출, 메모리·시스템 동반 하락으로 부진이 지속되나 낙폭은 완화

- (품목별)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한 86.4억 달러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부진이 장기화
 - 전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스마트폰·PC 등 IT기기 수요 약세, 빅테크 업체들의 서버向 투자 위축,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으로 메모리 및 시스템 수출이 부진. 다만 주요 업체의 감산효과 가시화에 따른 공급초과율 감소 등으로 하락폭은 개선
 - (메모리 반도체 : 42.5억 달러, △26.1%) 주요 제품 가격 하락 지속, 서버 투자 감소 등으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데이터센터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D램·메모리MCP·낸드플래시 등 주요 제품 수요가 개선되면서 낙폭이 축소

- (시스템 반도체 : 39.7억 달러, △14.9%) 전방 산업 수요 부진 등으로 고객사들이 패키징·파운드리·팹리스 등 주요 공정 주문을 축소한 가운데 8월 기준 '22년 최대 수출 달성(46.6억 달러, 31.0%↑)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며 8개월 연속 내림세 지속

* 시스템 공정별 수출액 및 증감률(단위 : 억 달러) : (패키징) 18.9, △21.6%, (IDM) 17.8, 8.0%↑, (파운드리) 1.9, △39.7%, (팹리스) 1.1, △61.9%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이 감소
 - 중국(홍콩 포함, 45.6억 달러, △20.6%)은 제조업 둔화, 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경제 회복 지연으로 메모리MCP·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20.7%)와 시스템(△20.7%)이 하락하면서 감소세 지속
 - 베트남(10.8억 달러, △17.6%)은 낸드플래시가 고성장(251.7%↑)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D램·메모리 MCP·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메모리(△30.1%)가 감소한 가운데 시스템 (△12.6%)도 하락하면서 8개월 연속 내림세
 - 한편 일본(1.2억 달러, 3.2%↑)은 메모리가 소폭 감소(△2.1%)했음에도 전기차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시스템(28.1%↑)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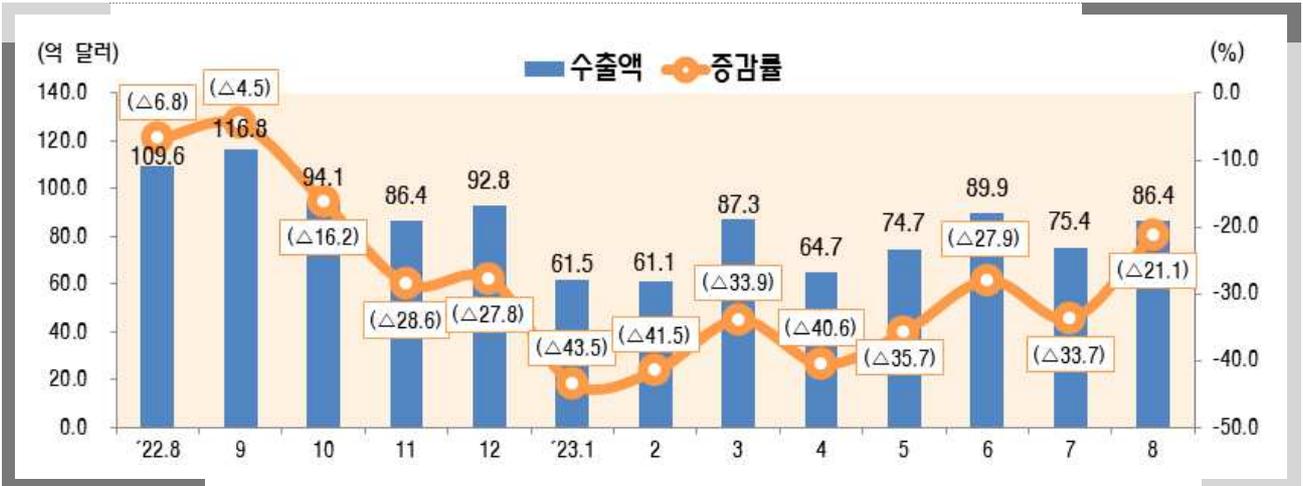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반도체	109.6 (△6.8)	116.8 (△4.5)	94.1 (△16.2)	86.4 (△28.6)	92.8 (△27.8)	61.5 (△43.5)	61.1 (△41.5)	87.3 (△33.9)	64.7 (△40.6)	74.7 (△35.7)	89.9 (△27.9)	75.4 (△33.7)	86.4 (△21.1)
메모리	57.5 (△24.7)	66.2 (△16.7)	44.7 (△35.7)	38.4 (△49.7)	44.4 (△47.2)	27.7 (△57.3)	29.2 (△53.9)	45.7 (△44.3)	29.3 (△54.1)	34.1 (△53.1)	47.7 (△38.8)	36.0 (△41.7)	42.5 (△26.1)
D램	27.9 (△26.0)	31.1 (△17.6)	20.7 (△41.9)	18.2 (△51.0)	24.5 (△40.8)	11.7 (△63.6)	12.6 (△60.5)	19.6 (△49.5)	14.7 (△54.5)	15.8 (△57.4)	19.0 (△51.0)	16.9 (△48.3)	18.1 (△35.2)
낸드	6.2 (9.3)	6.7 (2.4)	5.7 (△10.6)	5.2 (△16.8)	3.5 (△45.8)	3.6 (△30.3)	4.9 (△21.8)	6.4 (△14.6)	3.5 (△52.5)	3.7 (△53.9)	4.7 (△40.3)	3.6 (△51.9)	5.6 (△8.9)
메모리 MCP	20.8 (△26.5)	24.7 (△18.7)	16.5 (△30.0)	13.5 (△55.4)	14.9 (△52.6)	11.1 (△53.9)	10.6 (△49.6)	16.2 (△47.0)	9.8 (△50.3)	12.7 (△47.1)	21.4 (△14.5)	14.3 (△21.9)	16.7 (△19.6)
메모리 MCOs	2.5 (△46.6)	3.6 (△24.5)	1.7 (△56.3)	1.5 (△47.3)	1.5 (△70.1)	1.2 (△65.7)	1.0 (△75.9)	3.4 (△33.1)	1.1 (△73.9)	1.7 (△50.0)	2.4 (△59.6)	1.1 (△65.4)	1.9 (△24.0)
시스템 반도체	46.6 (31.0)	45.1 (20.2)	43.8 (17.6)	42.3 (8.3)	42.7 (9.9)	29.0 (△25.0)	26.9 (△25.5)	36.3 (△18.4)	31.2 (△22.1)	36.4 (△4.9)	37.8 (△9.6)	34.7 (△25.9)	39.7 (△14.9)
개별 소자	1.3 (△12.8)	1.4 (△8.1)	1.3 (△11.2)	1.3 (△9.5)	1.2 (△17.6)	1.2 (△14.0)	1.2 (△8.9)	1.5 (△3.5)	1.3 (△10.0)	1.3 (△12.6)	1.4 (2.8)	1.4 (12.7)	1.4 (6.7)
광전 소자	2.4 (△7.9)	2.5 (2.0)	2.7 (6.3)	2.9 (16.2)	3.0 (22.4)	2.2 (△5.9)	2.2 (9.2)	2.2 (11.1)	1.6 (△21.1)	1.6 (△11.2)	1.8 (△13.2)	2.1 (△9.4)	1.6 (△34.2)

자료 : IITP, KTSPI

그림 1-4 |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1	중국(홍콩)	715.8	-6.8	54.7	중국(홍콩)	45.6	-20.6	52.7	325.6	-36.1	54.2
2	베트남	162.8	16.0	12.4	베트남	10.8	-17.6	12.5	76.9	-29.4	12.8
3	대만	124.0	15.9	9.5	대만	9.0	-24.9	10.4	56.2	-35.7	9.3
4	미국	95.5	0.3	7.3	싱가포르	5.4	-8.4	6.3	30.0	-25.8	5.0
5	싱가포르	59.3	54.7	4.5	미국	4.3	-45.1	4.9	31.7	-52.2	5.3
6	필리핀	37.4	-1.4	2.9	인도	2.1	-22.0	2.4	12.4	-20.2	2.1
7	인도	22.7	79.8	1.7	필리핀	1.8	-43.5	2.0	11.8	-58.4	2.0
8	말레이시아	19.2	16.2	1.5	말레이시아	1.6	-10.2	1.9	11.8	-5.4	2.0
9	일본	13.5	-2.9	1.0	일본	1.2	3.2	1.4	10.4	9.4	1.7
10	독일	10.1	-6.6	0.8	브라질	0.7	-12.4	0.9	5.5	-22.0	0.9

자료 : IITP, KTSPI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중소형 시장 회복 등으로 올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하락폭이 크게 둔화될 전망

- (시장 전망) 지난해 큰 폭의 하락($\Delta 22.0\%$)을 딛고 올해는 낙폭(1,221.9억 달러, $\Delta 0.3\%$)이 크게 축소되고, 내년(1,304.9억 달러 6.8% \uparrow)엔 회복 전망(OMDIA, '23.6월)
 - (대형 시장) LCD 패널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트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 시장은 65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 다만 '23.4분기부터 전망 수요 회복 등이 기대되면서 '24년(703.5억 달러, 7.9% \uparrow)엔 반등할 것으로 관측
 - (중소형 시장) '23.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IT기기 및 전장용 등으로의 OLED 채용이 확대되면서 올해 시장(569.8억 달러, 0.5% \uparrow)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성장 반열에 진입할 전망
 - 이어 '24년(601.4억 달러, 5.5% \uparrow)엔 아이패드·XR기기向 OLED·OLEDoS 신수요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3년 만에 600억 달러대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관측

그림 1-5 | 글로벌 대형 및 중소형 패널 시장 전망



자료 : OMDIA, 2023.6.

- (TV 시장) 글로벌 TV 시장 부진 속, 초대형·프리미엄·OLED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올해 전 세계 TV 시장(965억 달러, $\Delta 5.8\%$)은 소비자 구매력 약화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70인치 이상의 초대형·프리미엄 TV 수요는 증가 추세(중앙일보, 9.3일, 원소스 OMDIA)
 - ※ 글로벌 TV 시장 내 70인치 이상 비중은 ('22) 20.2% → ('27e) 26.3%, 60~65인치도 동 기간 22.5% → 26.1%로 큰 폭 상승하는 반면 50~59인치(32.6% → 27.6%), 40~49인치(16.5% → 13.7%) 등은 위축 예상
 - (상반기 실적) '23.상반기 글로벌 TV 시장(금액 기준)에서 삼성전자(31.2%), LG전자(16.2%)는 1, 2위를 수성하였고 뒤이어 중국 업체인 TCL(10.2%), 하이센스(9.5%) 등이 3, 4위를 차지

- 한편 OLED TV 시장에 재진입한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의 W-OLED를 채용해 83인치 초대형 OLED TV를 라인업에 추가하는 등 OLED TV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23.상반기 OLED TV 시장 내 삼성전자 점유율(전년 동기 3% → 18.3%)은 크게 확대(전자신문, 9.10일, 원소스 OMDIA)
 - ※ 삼성전자는 OLED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전자(51.7%)를 빠르게 추격하며 2위 차지
- LG전자도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프리미엄 QD-LCD TV(LCD 패널에 QD 필름 추가, QLED) 시장 공략을 위해 75인치 이상의 QNED TV(QD 필름과 나노셀 물질을 사용한 LCD TV) 라인업을 확대하며 초대형 제품에 집중하는 등 시장 불황 속에도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실적 개선에 집중
 - ※ QD-LCD TV 시장을 압도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점유율('22.상, 81.8% → '23.상 67.9%)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지난해 시장 집계조차 되지 않았던 LG전자는 동 시장에서 올 상반기 13.7%를 차지하면서 2위로 부상

그림 1-6 | 글로벌 전체 및 OLED TV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2023년 상반기)



자료 : 연합뉴스, 2023.8.21.(원소스 OMDIA)

□ 글로벌 기업 애플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망을 두고 한·중·일 업체 간 경쟁이 치열

- 韓 애플의 아이폰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물량 확대에 성공, 日 소니도 마이크로 OLED를 기반으로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진입해 눈길
 - **(#1 아이폰15)** 韓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이폰15 초기 물량의 70~75%가량을 도맡을 것이 유력해지면서 아이폰향 패널 공급전에서 기술력²⁾으로 압승해 눈길. 추후 BOE가 애플의 승인을 받더라도 삼성디스플레이 75%, LG디스플레이 24%인 반면 BOE는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
 - ※ BOE는 당초 아이폰15 기본·플러스 2종에 OLED 패널 공급 예정이었으나 홀 디스플레이 제작 과정에서 빛이 새는 문제, 수율 문제 등으로 애플의 품질 기준에 미달. 이에 해당 물량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흡수
 - **(#2 비전프로)** 日 소니가 4K(3,552×3,840) 해상도, 90Hz 주사율 등을 지원하는 AR/VR용 1.3인치 마이크로 OLED를 공식 발표(8.24일)해 주목. 동 제품은 '23.11월부터 선적될 예정이며 가격은 당초 예상치(약 46만 원/대)보다 약 3배가량 비싼 15만 엔/대(약 136.5만 원/대)으로 책정
 - ※ 이외에도 최대 밝기는 5,000니트(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 성능에서는 1,000니트), 명암비는 100,000:1 이상, 색 영역은 DCI-P3기준 96% 이상, 인치당 픽셀수도 4000PPI(픽셀 피치, 픽셀 간격은 6.3 μ m) 이상을 지원. 국내 업체들도 OLEDoS 개발 역량에 집중

2) 삼성디스플레이는 '19년부터 이미 갤럭시S10H용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해왔으며 이미 겪었던 빛샘 문제는 홀 주변을 3차원(경쟁 업체는 2차원인 평면으로 막고 있음)으로 커버해 해결

2) 수출 동향

□ '23.8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6개월 간의 회복 추세 끝에 마침내 성장 반열 진입

- (품목별) OLED 패널의 두 자릿수 성장 반등으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1.3억 달러를 기록. 9개월 만에 20억 달러대로 재진입한 점도 눈길
 - (LCD 패널 : 4.1억 달러, $\Delta 24.3\%$) 국내 생산 중단 및 감소, 전방 수요 부진 등으로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
 - (OLED 패널 : 14.6억 달러, 16.3% \uparrow) 폴더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IT기기·모니터·차량용 등의 신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역대 8월 기준 최대 수출 규모를 달성
 - (부분품 : 2.6억 달러, $\Delta 12.4\%$) 편광판(1.5억 달러, $\Delta 18.9\%$) 등의 역성장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BLU(5.9% \uparrow)의 견조세 등으로 6개월 연속 하락세가 둔화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멕시코 등은 하락한 반면 베트남·인도 등의 수출 호조로 반등
 - 베트남(13.5억 달러, 22.3% \uparrow)은 LCD(0.6억 달러, 51.8% \uparrow), OLED(12.6억 달러, 20.7% \uparrow), 부분품(0.3억 달러, 50.0% \uparrow) 등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오름세
 - 중국(홍콩 포함, 5.5억 달러, $\Delta 20.8\%$)은 LCD(2.5억 달러, $\Delta 21.6\%$), OLED(1.3억 달러, $\Delta 17.8\%$), 부분품(1.7억 달러, $\Delta 21.9\%$)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16개월 연속 역성장
 - 멕시코(0.9억 달러, $\Delta 29.3\%$)는 부분품(0.2억 달러, 8.0% \uparrow)의 견조세 지속, OLED(0.2억 달러, 326.3% \uparrow)의 반짝 급등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0.5억 달러, $\Delta 51.8\%$) 감소로 부진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패널	20.9 ($\Delta 5.3$)	19.8 ($\Delta 18.6$)	20.3 ($\Delta 9.6$)	20.1 ($\Delta 17.3$)	16.0 ($\Delta 35.2$)	14.6 ($\Delta 37.7$)	13.0 ($\Delta 42.2$)	14.3 ($\Delta 41.4$)	14.2 ($\Delta 30.5$)	16.0 ($\Delta 12.0$)	15.9 ($\Delta 11.1$)	18.9 ($\Delta 5.4$)	21.3 (1.8)
LCD	5.4 (12.5)	3.5 ($\Delta 27.3$)	3.6 ($\Delta 30.4$)	3.6 ($\Delta 33.5$)	3.4 ($\Delta 39.6$)	3.0 ($\Delta 44.7$)	3.0 ($\Delta 43.1$)	2.8 ($\Delta 53.3$)	2.9 ($\Delta 43.9$)	3.3 ($\Delta 31.9$)	3.5 ($\Delta 19.5$)	4.0 ($\Delta 15.2$)	4.1 ($\Delta 24.3$)
OLED	12.6 ($\Delta 10.0$)	13.5 ($\Delta 16.5$)	14.3 (2.9)	14.1 ($\Delta 7.6$)	10.2 ($\Delta 33.7$)	9.6 ($\Delta 31.3$)	8.0 ($\Delta 39.3$)	9.1 ($\Delta 35.9$)	9.2 ($\Delta 21.6$)	10.6 (6.6)	10.2 ($\Delta 6.7$)	12.5 ($\Delta 0.2$)	14.6 (16.3)
부분품	2.9 ($\Delta 11.6$)	2.8 ($\Delta 16.2$)	2.4 ($\Delta 29.8$)	2.3 ($\Delta 34.2$)	2.4 ($\Delta 35.3$)	2.1 ($\Delta 50.1$)	2.1 ($\Delta 50.4$)	2.4 ($\Delta 42.6$)	2.1 ($\Delta 40.1$)	2.1 ($\Delta 37.8$)	2.2 ($\Delta 16.3$)	2.4 ($\Delta 12.5$)	2.6 ($\Delta 12.4$)

자료 : IITP, KTSPI

그림 1-7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순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8.9	2.9	52.8	베트남	13.5	22.3	63.4	76.0	-9.9	59.2
2	중국(홍콩)	93.6	-12.7	38.3	중국(홍콩)	5.5	-20.8	25.8	38.7	-43.0	30.1
3	멕시코	6.5	153.2	2.7	멕시코	0.9	-29.3	4.3	4.5	-11.5	3.5
4	헝가리	2.9	239.5	1.2	인도	0.4	51.2	1.8	2.0	-0.1	1.5
5	인도	2.6	128.2	1.1	헝가리	0.2	-58.0	0.9	1.0	-49.4	0.8
6	미국	1.7	-23.5	0.7	미국	0.2	22.0	0.8	1.3	11.2	1.0
7	일본	1.6	59.8	0.7	일본	0.1	-42.1	0.4	0.7	-30.9	0.6
8	슬로바키아	0.8	172.6	0.3	브라질	0.1	62.7	0.4	0.3	1.5	0.3
9	말레이시아	0.7	147.6	0.3	이집트	0.1	-29.8	0.3	0.3	-40.0	0.2
10	대만	0.6	-8.4	0.2	슬로바키아	0.1	-62.1	0.3	76.0	-9.9	59.2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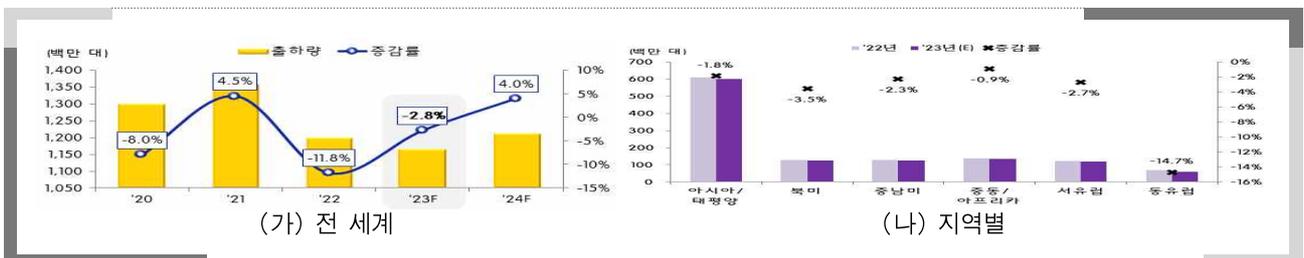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올해 글로벌 전역에서 하락이 예상되나 내년 반등을 기대

- **(전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1억 6,48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폭은 둔화될 전망이다(SA, '23.6월 전망 및 '23.8월 실적 자료)
 - 글로벌 경기 불황에 따른 수요 약세, 제품 교체 주기 증가, 새로운 혁신 기술 부재에 따른 추가 성장 동력 부족 등으로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다만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업체의 플래그십 제품 출시 등 호재가 작용함에 따라 하반기 상승 궤도에 진입하면서 하락폭은 감소할 전망
 - ※ '23년 분기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추이 : (1Q) △14.2% → (2Q) △7.6% → (3QF) 0.0% → (4QF) 11.4% ↑
 - 또한 견조한 프리미엄폰 수요,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 반등(4.0%↑)을 기대
- **(지역별)**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글로벌 전역에서 위축이 예상되나 내년엔 상승 전환 전망
 - 미·중 갈등 심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물가 하락 등 악재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경기 위축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은 전년 대비 1.8% 하락할 전망
 -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전 세계 소비자들의 제품 업그레이드 수요 감소 등으로 북미(△3.5%)·중남미(△2.3%)·중동/아프리카(△0.9%)·서유럽(△2.7%) 등 글로벌 전역에서 시장 위축을 예상
 -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에 리·우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요인까지 가중된 동유럽은 전 지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14.7%)하는 등 가장 큰 부진을 겪을 전망
 - 다만 '24년엔 동유럽이 두 자릿수 성장(11.3%↑)을 기록하는 등 전 지역이 반등하면서 성장 전환할 전망
 - ※ '24년 지역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전망(단위 : %) : (아시아/태평양) 3.6↑, (북미) 3.7↑, (중남미) 4.2↑, (중동/아프리카) 3.7↑, (서유럽) 2.8↑, (동유럽) 11.3↑

그림 1-8 전 세계 및 지역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료 : SA, 2023.6.



리스트에 등재하고 5G용 반도체 수출 및 관련 기술 이전을 금지

- 또한 '22.10월에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및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역량 향상을 견제
 - ※ 미국이 동맹국에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 및 거래 제한 등 對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ASML이 '22년부터 화웨이에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수출을 금지했으며, '23.9.1일부터는 DUV(심자외선)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등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 위기가 가중
- 한편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작년 가상화폐 채굴 장비에 탑재되는 7nm 칩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스마트폰용 반도체도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등 7nm 양산 성공이 기정사실화
- 이에 따라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 점화와 더불어 중국 반입이 금지된 EUV 장비 없이 7nm 양산에 성공한 방법에 대한 의구심 증폭
- 미국은 메이트60 프로에 내장된 7nm 공정 반도체 및 SMIC의 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등에 따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 미국은 특정 스마트폰, 칩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안보에 대한 전체적 맥락으로 조사에 접근할 것이라 발표.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확대되고 반도체 외 다른 산업으로 확산 가능성도 존재

□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출시, 중국발 부진 우려를 불식시키며 호조세로 출발

- 애플이 아이폰15 시리즈를 출시한 가운데 하위 모델(기본·플러스)과 상위 모델(프로·프로맥스)에 차별을 두는 ‘급 나누기’ 기조를 유지
 - '23.9.12일 애플은 ‘아이폰15’·‘아이폰15 플러스’·‘아이폰15 프로’·‘아이폰15 프로맥스’ 등 아이폰15 시리즈 4종을 공개했으며,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15일부터 사전 주문, 22일부터 매장 판매를 시작
 - ※ 한국은 1차 출시국(미국·영국·중국·일본·인도 등 40개 이상)과 2차 출시국(베트남·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 17개)에서 제외돼 정확한 출시일이 미정인 가운데 10월 초·중반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아이폰15 시리즈는 전 라인업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적용하고 자체 규격 충전 단자인 라이트닝 대신 USB-C 단자를 탑재한 가운데 하위 모델(기본·플러스)과 상위 모델(프로·프로맥스) 성능에 차이를 두는 등 이원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지속
 - ※ EU는 내년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USB-C 단자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애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USB-C 단자를 채택한 가운데 라이트닝 케이블을 USB-C로 변환하는 어댑터도 공개
 - 하위 모델에는 전작 프로·프로맥스에 탑재됐던 ‘A16 바이오닉’ AP를 적용한 반면 상위 모델에는 최신 AP인 ‘A17 프로’를 내장했으며, 내년 출시 예정인 공간 컴퓨터 ‘애플 비전 프로’와 연동되는 3차원 사진·동영상 촬영도 가능
 - ※ A17 프로는 업계 최초 3nm AP로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전작 대비 각각 10%, 20% 향상됐으며, NPU(신경망처리장치) 속도도 2배 향상되는 등 고도화된 처리 능력을 보유

- 또한 상위 모델에는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높은 티타늄을 적용해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화면 테두리를 구현했으며, 음소거 스위치도 ‘액션 버튼’으로 변경
 - ※ 음소거 스위치를 버튼 형식으로 변경한 액션 버튼은 무음 조절뿐만 아니라 카메라·음성 메모·플래시라이트 작동 등 다양한 동작을 실행하는 데 활용 가능
- 한편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전작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대기수요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한국의 경우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작 출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미국보다 약 10%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
 - ※ 아이폰14 시리즈가 출시된 '22.9월 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으나, '23.9.13일 마감 기준 1,330원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크게 하락

표 1-7 | 아이폰15 시리즈 주요 사양

모델명	아이폰15	아이폰15 플러스	아이폰15 프로	아이폰15 프로맥스
제품 사진				
AP	A16 바이오닉		A17 프로	
소재	알루미늄 및 컬러 인퓨즈 글래스 소재 후면		티타늄 및 무광 글래스 소재 후면	
디스플레이	6.1인치 Super Retina XDR 2,556 × 1,179	6.7인치 Super Retina XDR 2,796 × 1,290	6.1인치 Super Retina XDR 2,556 × 1,179 (상시표시형)	6.7인치 Super Retina XDR 2,796 × 1,290 (상시표시형)
카메라	첨단 듀얼 카메라 시스템 (4,800만 화소 메인 +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 (4,800만 화소 메인 +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 1,200만 화소 망원)	
출고가	128GB : 799달러 256GB : 899달러 512GB : 1,099달러	128GB : 899달러 256GB : 999달러 512GB : 1,199달러	128GB : 999달러 256GB : 1,099달러 512GB : 1,299달러 1TB : 1,499달러	256GB : 1,199달러 512GB : 1,399달러 1TB : 1,599달러
기타	USB-C 타입 충전 단자, IP68 방진·방수, 긴급 구조 요청, 충돌 감지			

자료 : Apple

-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에서 상위 모델이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예상보다 선전
 - '23.9.6일 중국은 국가안보, 네트워크 보안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의 정부 청사 출입 및 공무 수행 시 아이폰 소지와 사용 금지를 발표
 - ※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와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화웨이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대응 강화, 중국 내 애플 지배력 약화 등이 실질적 이유라는 견해가 존재
 - 아이폰 사용 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및 국영 기업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15 시리즈 판매량 감소 등 부진이 우려됐으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 내 공식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15 시리즈 예약판매 시작 후 프로·프로맥스가 1분 만에 1차 판매 물량 완판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선전, 수요 부진 우려를 불식

※ BOA(Bank of America)는 중국의 정부기관 내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 등으로 올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약 500만~1,00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상위 모델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이 예상되며,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15 프로맥스의 리드타임이 약 5~6주로 지난 7년간 출시된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최장을 기록(한국경제 및 조선일보, '23.9월)

※ 수요 증가로 사전 주문이 집중되면 리드타임(주문부터 실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 발생

2) 수출 동향

□ '23.8월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부분품이 동반 하락하면서 7개월 연속 내림세

○ (품목별)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9.9억 달러를 기록

- (휴대폰 완제품 : 1.8억 달러, △30.6%) 국내 주요 업체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고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교체 주기 장기화 등으로 7개월 연속 하락

- (휴대폰 부분품 : 8.2억 달러, △6.9%)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 등으로 카메라 모듈·3D 센싱 모듈·커버(프레임, 힌지 등) 등 주요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 다만 낙폭은 완화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5.6억 달러, △13.8%), 베트남(1.3억 달러, △10.2%), 인도(0.2억 달러, 154.7%↑)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베트남·EU 등은 하락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성장

- 중국(홍콩 포함, 5.7억 달러, △13.0%)은 국내 업체의 하반기 폴더블 신제품 수요 발생 등으로 완제품(110.5%↑)이 반등했으나, 부분품(△13.8%)이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내림세

- 베트남(1.3억 달러, △10.6%)은 완제품(△42.8%) 낙폭이 확대된 가운데 부분품(△10.2%)도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

- 미국(0.8억 달러, 34.5%↑)은 부분품(△6.7%)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상반기 플래그십 제품 호조가 지속되면서 완제품(75.8%↑)이 증가함에 따라 3개월 연속 오름세

- 일본(0.7억 달러, 331.1%↑)은 국내 업체가 하반기 출시한 폴더블 제품이 완제품(716.5%↑)의 고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부분품(4.5%↑)도 증가하면서 세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며 반등

- EU(0.3억 달러, △60.0%)는 부분품(11.0%↑)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인플레이션 장기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완제품(△71.6%)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7개월 연속 감소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휴대 단말기	11.3 (△3.7)	14.5 (20.1)	15.5 (13.0)	13.8 (△6.4)	9.5 (△29.2)	13.8 (21.9)	10.3 (△5.7)	8.3 (△49.4)	8.1 (△41.6)	9.2 (△17.2)	7.8 (△18.9)	7.2 (△19.6)	9.9 (△12.2)
완제품	2.5 (△34.9)	4.1 (23.5)	2.9 (△28.8)	2.8 (△34.5)	0.9 (△76.6)	3.2 (152.2)	1.7 (△36.2)	2.6 (△66.4)	3.3 (△42.3)	3.2 (△24.2)	2.4 (△46.9)	2.3 (△22.4)	1.8 (△30.6)
부분품	8.8 (11.8)	10.4 (18.9)	12.7 (30.2)	11.0 (5.1)	8.6 (△11.2)	10.7 (5.7)	8.5 (4.5)	5.7 (△34.4)	4.8 (△41.2)	6.0 (△12.9)	5.3 (6.7)	4.9 (△18.2)	8.2 (△6.9)

자료 : IITP, KTSPi

그림 1-10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홍콩)	74.5	39.8	50.7	중국(홍콩)	5.7	-13.0	57.4	36.6	-13.1	49.0		
2	베트남	18.8	-35.9	12.8	베트남	1.3	-10.6	13.5	10.0	-24.0	13.4		
3	미국	10.5	-57.1	7.2	미국	0.8	34.5	8.3	10.2	23.2	13.6		
4	독일	5.8	21.2	3.9	일본	0.7	331.1	7.4	1.6	32.5	2.1		
5	영국	5.3	1.0	3.6	필리핀	0.3	2709.3	3.4	1.7	1733.0	2.3		
6	오스트리아	5.1	170.3	3.5	인도	0.2	-87.0	1.7	0.9	-65.4	1.2		
7	인도	3.8	13.2	2.6	뉴질랜드	0.1	4857.2	1.0	0.0	-99.5	0.0		
8	캐나다	2.8	77.7	1.9	영국	0.1	16.2	1.0	2.2	-45.6	3.0		
9	네덜란드	2.8	108.8	1.9	대만	0.1	2.8	0.9	0.6	-25.7	0.8		
10	일본	2.3	2.9	1.6	오스트리아	0.1	-63.6	0.6	1.3	-64.9	1.8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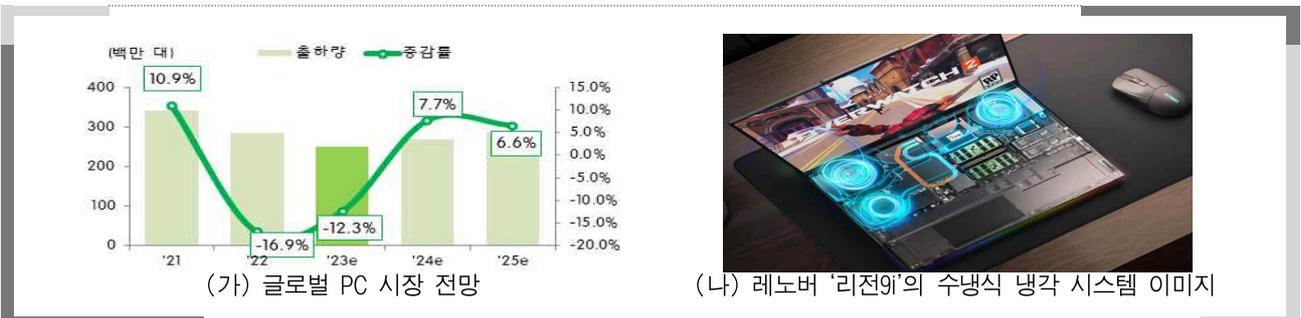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올해 경제적 역풍에 직면하며 역성장 불가피, 다만 내년부터는 반등 회복할 전망

- (시장 전망) '23년 PC 시장, 글로벌 침체 사이클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 예상(Gartner, '23.8월)
 -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PC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3년 시장(2억 4,907만 대, △12.3%)은 2년 연속 하락 전망
 - 다만 '23.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거시 환경 개선, PC 재고량 감소, 소비자向 수요 회복 조짐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24년(2억 6,817만 대, 7.7%↑) 본격 반등하며 상승 곡선에 진입할 전망
- PC 시장 불황 속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채택 및 라인업 확대 등의 전략 구사
 - (Lenovo)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3(9.1~5일)'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한 AI 튜닝 게이밍 노트북 16인치 '리전9i'를 공개('23.10월 출시 예정)
 - ※ 기존 게이밍 노트북은 방열판을 사용하여 열 관리를 하나 동 제품은 작은 펌프를 사용하여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물을 순환시키는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탑재한 것이 특징
 - 자사의 발열관리 기술인 '리전 쿨드프론트'와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조합해 GPU 온도가 84도에 도달할 경우 인공지능이 냉각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가동하여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해 가혹한 게이밍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 및 컨디션 유지가 가능
 - (Apple) '18년 이후 프리미엄 '맥북 프로', 보급형 '맥북 에어' 두 종을 핵심 라인업으로 구축해 온 동 사는 '24년부터 저가형 제품을 라인업에 추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장할 전망
 - ※ 코로나19 등으로 교육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구글의 저가형 노트북 크롬북이 엔데믹 이후에도 수요가 지속되자 애플은 저가형·교육용 시장에서 아이패드 대신 크롬북 채택이 늘어나는 사태를 견제하고자 저가형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

그림 1-11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레노버 신제품의 수냉식 냉각 시스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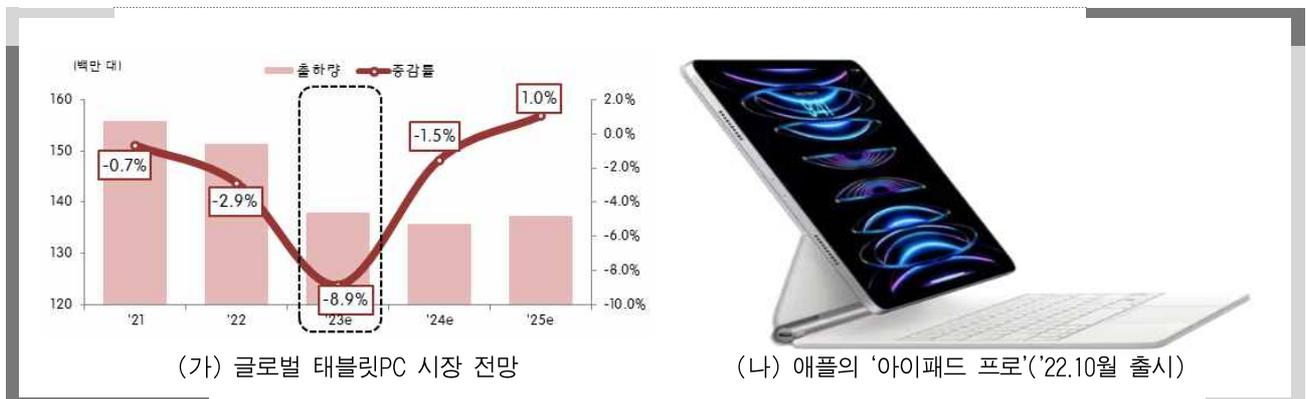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8. / 언론 자료 인용

□ (태블릿PC) 팬데믹 종결,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올해 시장은 3년 연속 감소 예상

- (시장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 등으로 역성장 지속 전망
 -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1억 3,791만 대에 그칠 전망(Gartner, '23.8월)
 - 다만 '24년(1억 3,580만 대, △1.5%)은 완만한 경기 회복, 차세대 칩을 탑재한 OLED 태블릿PC 신제품 출시 기대 등으로 소폭 개선되며 하락 폭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업체들은 태블릿PC 수요 둔화를 극복하고자 성능·활용성 등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
 - (Apple) 태블릿PC 시장 냉각 속,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에 '1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목이 집중
 - 디스플레이 크기는 11·13인치로 전작과 유사하겠으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3nm 기술의 'M3' 최신 칩 탑재, 아이패드 제품 중 최초로 OLED 패널 적용 등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부진한 태블릿PC 판매를 촉진할 방침
 - 또한 '20년 아이패드에 첫 적용된 액세서리 매직 키보드도 크기 확대와 더불어 한쪽 끝은 고정하고 다른 끝은 고정하지 않는 캔틸레버(cantilever) 스타일의 키보드로 개선 적용할 것으로 관측. 아이패드를 보다 노트북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해 태블릿PC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Lenovo) 12.7인치 LCD 패널, 2,944×1,840의 해상도, 6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10,200mAh의 배터리(최대 10시간 지속)를 탑재해 휴대성 등을 강화한 태블릿PC 'P12'를 출시('23.7월)
 - 특히 노트 필기, 계산기 등의 애플리케이션인 '네보', '마이크로소프트 칼큘레이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최대 4개까지 화면 분할이 가능해 교육용·엔터테인먼트용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는 점도 특징

그림 1-12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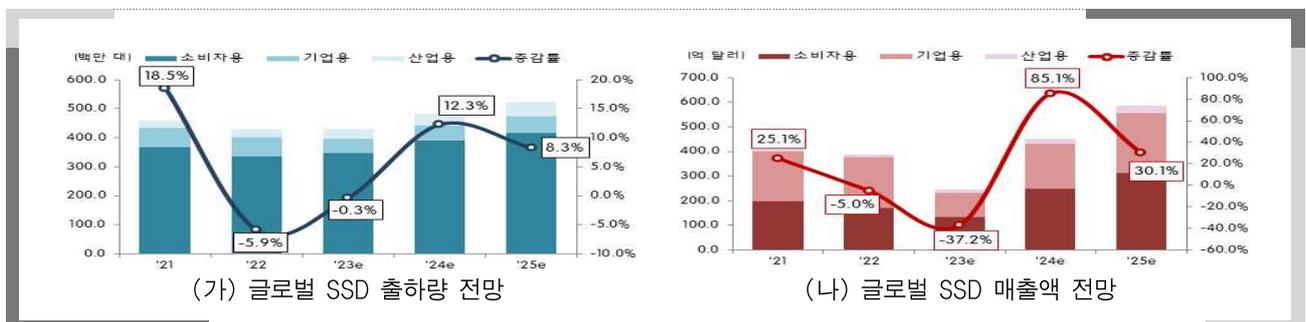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8. / 언론 자료 인용

□ (SSD) 올해 출하량 및 매출액은 동반 하락, 내년은 여건 개선 등으로 상황 호전이 기대

- (시장 전망) '23년은 SSD 가격 하락, 기업용 수요 감소 등으로 출하량·매출액의 부진이 전망되나 '24년은 SSD 가격 회복 등으로 반등이 기대
 - (소비자용) 고사양·고화질의 게이밍·엔터테인먼트向 수요가 늘어나면서 출하량(3억 4,647만 대, 3.1%↑)은 회복 반등하겠으나 매출액(133.3억 달러, △21.5%)은 가격 하락 등으로 역성장 예상
 - (기업용) 인공지능, 챗GPT 등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IT 기업들의 투자 둔화로 출하량(4,968만 대, △25.0%)과 매출액(97.9억 달러, △52.8%) 모두 급감할 전망
 - 이에 따라 '23년 SSD 출하량(4억 3,073만 대, △0.3%)은 소비자용 수요에 힘입어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매출액(243.7억 달러, △37.2%)은 고객사들의 낸드 플래시 재고 누적에 따른 가격 하락 여파로 최악의 낙폭을 보일 전망
 - 다만 '23.4분기부터 공급 업체들의 감산 효과 등으로 가격 회복 조짐이 관측되면서 '24년 SSD 매출액(451.0억 달러, 85.1%↑)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
- 4K를 비롯한 대용량 데이터 등의 전송·로딩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고용량 고성능 신제품을 출시
 - (삼성전자) '22.10월 '990 PRO' 1.2TB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한 크리에이터, 게이머 등에 최적화된 고용량 고성능 SSD '990 PRO' 4TB 신제품 2종 출시를 예고('23.9.7일)
 - ※ 신제품은 '990 PRO 4TB'와 방열 기능을 강화한 '990 PRO with Heatsink 4TB'이며 연속 읽기·쓰기는 최대 7,450MB/s, 6,900MB/s, 임의 읽기·쓰기 속도는 1,600K IOPS, 1,550K IOPS를 지원
 - 동 제품들은 PCIe 4.0 기반의 소비자용 SSD 중 가장 빠른 임의 읽기 속도를 제공해 PC·콘솔 등에서 로딩 시간 및 끊김 현상 등을 줄여주며 전력 효율도 전작 대비 최대 50% 향상
 - 또한 자사의 8세대 V낸드('22.11월 양산 시작)를 소비자용 SSD에 처음으로 적용한 점도 눈길. 일각에서는 소비자용 SSD의 8세대 V낸드 채용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동 제품들은 고밀도 적층 공정으로 양면이 아닌 단면으로 설계돼 다른 양면 SSD보다 얇은 점이 특징. 기존 적용이 어려웠던 노트북 등에 장착이 가능

그림 1-13 | 글로벌 SSD 출하량 및 매출액 전망



자료 : Gartner, 2023.8.

2) 수출 동향

□ '23.8월 수출은 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하며 낙폭이 확대

- **(품목별)** 컴퓨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SSD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체 상황이 지속
 - (컴퓨터 : 0.8억 달러, 17.7%↑) 노트북(0.1억 달러, 62.4%↑)의 견조세, 부분품(0.5억 달러, 29.2%↑)의 반등 등으로 2개월 연속 상승
 - ※ '22.1월 이후 13개월간 두 자릿수대의 하락이 지속되었으나 '23.2월부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안정화되는 양상
 - (주변기기 : 5.8억 달러, △51.3%) 모니터(1.2억 달러, 26.4%↑)의 두드러진 성장에도 불구하고 프린터(0.3억 달러, △25.6%), SSD(3.6억 달러, △63.3%) 등의 내림세로 14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주요 교역국인 중국(홍콩 포함)·미국 등은 역성장, 수출액도 2억 달러대를 하회
 - 중국(홍콩 포함, 1.9억 달러, △47.0%)은 컴퓨터(0.3억 달러, 38.3%↑) 등이 반등하였으나 SSD(1.3억 달러, △56.6%) 수출 반락 등으로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
 - 미국(1.7억 달러, △64.9%)은 SSD 수출(1.0억 달러, △75.5%)의 가파른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 되면서 2개월 연속 2억 달러대를 밑도는 수출액 기록

표 1-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6 (△25.4)	15.4 (△20.2)	10.3 (△30.9)	9.7 (△45.2)	11.7 (△29.5)	6.3 (△58.7)	6.6 (△58.6)	8.5 (△52.5)	5.9 (△66.7)	8.3 (△53.1)	8.7 (△48.7)	8.7 (△28.0)	6.6 (△47.4)
컴퓨터	0.7 (△60.1)	0.8 (△60.1)	0.7 (△66.2)	0.8 (△63.0)	1.1 (△52.6)	0.7 (△24.3)	0.8 (2.7)	0.9 (23.1)	0.7 (△17.4)	0.9 (△6.0)	0.8 (△9.9)	1.0 (11.8)	0.8 (17.7)
부품	0.4 (△75.7)	0.4 (△76.8)	0.4 (△77.5)	0.4 (△77.2)	0.6 (△69.1)	0.5 (△15.6)	0.4 (12.4)	0.5 (23.2)	0.4 (△22.3)	0.4 (△15.7)	0.4 (△24.9)	0.5 (△13.3)	0.5 (29.2)
주변기기	11.9 (△21.3)	14.6 (△15.6)	9.6 (△25.2)	8.9 (△42.7)	10.5 (△25.7)	5.6 (△61.1)	5.8 (△61.7)	7.6 (△55.6)	5.1 (△69.4)	7.4 (△55.6)	7.8 (△51.0)	7.7 (△31.1)	5.8 (△51.3)
보조기 장치	9.8 (△28.0)	12.3 (△19.8)	7.4 (△31.5)	6.8 (△51.3)	8.1 (△34.3)	3.2 (△73.4)	3.7 (△72.0)	5.4 (△61.9)	2.9 (△79.8)	5.3 (△62.5)	5.3 (△60.4)	5.3 (△39.0)	3.6 (△63.4)
프린터	0.4 (62.7)	0.4 (19.1)	0.4 (35.3)	0.3 (△4.4)	0.4 (△2.7)	0.3 (△30.2)	0.3 (1.8)	0.3 (△24.4)	0.3 (△22.2)	0.3 (△20.6)	0.4 (△4.1)	0.3 (△20.2)	0.3 (△25.6)
모니터	1.0 (64.3)	1.1 (55.9)	1.1 (56.1)	1.1 (41.7)	1.2 (35.8)	1.1 (△15.8)	1.2 (21.9)	1.2 (0.4)	1.2 (12.9)	1.2 (7.5)	1.3 (23.0)	1.3 (24.8)	1.2 (26.4)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64.0	12.7	37.0	중국(홍콩)	1.9	-47.0	29.1	18.8	-50.2	31.6
2	중국(홍콩)	51.4	-19.6	29.7	미국	1.7	-64.9	26.2	14.5	-68.5	24.3
3	네덜란드	7.2	52.2	4.2	베트남	0.5	55.0	6.8	3.8	37.5	6.4
4	일본	6.8	22.8	4.0	일본	0.3	-18.7	4.9	3.3	-38.2	5.5
5	대만	4.4	-10.6	2.5	폴란드	0.3	-17.0	4.0	2.0	-15.4	3.3
6	베트남	4.3	194.9	2.5	멕시코	0.2	-33.8	2.8	1.3	-58.9	2.1
7	싱가포르	4.2	-1.5	2.5	싱가포르	0.2	-41.3	2.7	1.5	-54.1	2.5
8	멕시코	4.0	-15.4	2.3	체코	0.2	-58.4	2.5	1.0	-56.1	1.6
9	폴란드	3.4	36.4	2.0	독일	0.1	-40.6	2.2	1.1	-47.6	1.9
10	체코	2.9	6.3	1.7	대만	0.1	-54.5	1.9	14.5	-68.5	24.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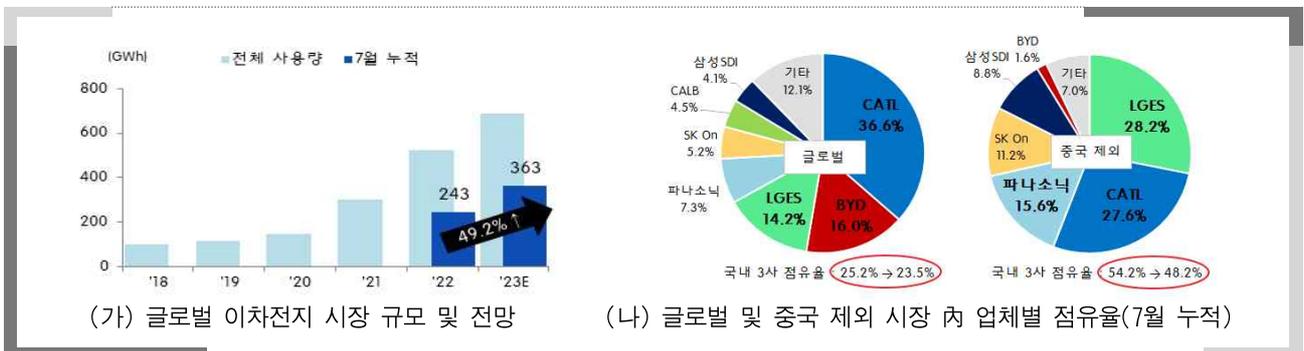
6 이차전지

1) 수출 환경

□ 내연기관차→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호황 지속

- (시장 규모 및 전망) '23.7월 누적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363GWh, 49.2%↑)은 두 자릿수대의 고성장을 지속(SNE리서치, '23.8월)
 -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따른 전기차 할인 경쟁 과열, 주요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 증가 등으로 전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23.7월 누적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가파른 성장 곡선을 지속
 - ※ '23.7월 누적 전기차(BEV+PHEV) 판매량은 737.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2% 증가하며 견조세 지속
- (경쟁 동향) 글로벌 상위 업체 실적(7월 누적)은 모두 상승, 다만 韓 영향력이 축소되는 양상
 - 글로벌 1위를 굳건히 수성하고 있는 CATL(132.9GWh, 54.3%↑)은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유럽·북미 등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非중국 시장에서도 2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
 - ※ 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韓 LG에너지솔루션('23.7월 누적, 28.2%)이 1위를 수성하고 있으나 2위인 CATL이 전년 동기 대비 격차('22.7월 누적 7.9%p → '23.7월 누적 0.6%p)를 크게 축소하며 근소한 수준까지 바짝 추격
 - BYD(58.1GWh, 94.1%↑)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등에 따른 내수 둔화를 극복하고자 유럽·오세아니아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
 - LG에너지솔루션(51.4GWh, 53.2%↑)은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점유율 증가(전년 동기 대비, 0.4%p↑)를 기록하며 3위를 고수. 파나소닉(26.6GWh, 38.2%↑)은 테슬라Y向 판매 호조 등으로 4위 차지
 - 이어 SK On(19.0GWh, 16.3%↑), CALB(16.4GWh, 65.4%↑), 삼성SDI(15.0GWh, 32.0%↑)도 모두 실적이 성장하며 각각 5, 6, 7위에 랭크

그림 1-15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및 중국 제외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2023.9.

□ 국내 업체, 中 가성비 LFP에 밀려 점유율 위축 속 IAA 2023에 참여해 돌파구 모색

- '23년 中 이차전지 생산량이 자국 수요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거 LCD, 태양광 패널처럼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中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공세가 우려
 -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 CRU에 따르면 올해 중국 내 이차전지 수요 예측치는 636GWh에 불과한 반면 중국 업체들의 공급량은 수요량의 두 배를 훌쩍 넘는 1,448GWh(전기차 2,200만 대 제조 가능)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과잉생산이 우려(한국경제, 9.5일)
 - '22년에 이미 공급(545.9GWh)이 수요(약 446.9GWh)를 넘어섰으며 '27년에는 공급량이 중국 전체 수요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돼 中 이차전지 산업의 공급 과잉이 심각해질 전망
 - 이에 과거 LCD 패널,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흐름과 비슷하게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LFP 등을 앞세워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한국 등 다른 이차전지 경쟁 업체들의 경쟁력 소멸이 우려돼 대비책 마련이 필요
- 韓,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IAA 모빌리티 2023(9.5~10일)'에 참여해 신소재·새로운 폼팩터를 활용한 고성능 이차전지 신제품 등을 공개하며 中 주도권 확대 저지 움직임 관측
 - (삼성SDI) 중국이 독주하고 있는 저가형 LFP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리튬 인산 철(LFP)에 망간(Mn)을 추가한 LMFP 이차전지를 최초로 공개. LMFP는 망간을 혼합하여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15~20%가량 높고 NCM 대비 제조 원가도 낮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수한 점이 장점
 - 이외에도 가격이 비싼 코발트를 제거한 코발트 프리 'NMX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등의 차세대 라인업과 공간 효율화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이차전지 폼팩터 등을 공개하며 다각적 전략을 강구
 - ※ (참고) 새로운 폼팩터에서는 이차전지 셀 상단에 위치한 양극-음극단자를 측면으로 옮기고 상하부에 냉각 시스템을 추가해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셀 내부 전류경로도 최소화해 성능을 극대화
 - (SK On) IAA 모빌리티 2023에 참관하여 현재 파우치형이 아닌 새로운 폼팩터(각형 등) 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밝히며 공급선 확대를 위해 완성차 업체와의 사업 협력 확장도 모색할 것이라 예고
 - ※ 한편 동사가 국내 업체 최초로 선보인 LFP 이차전지('23.3월 공개)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 전극 기술(저온(-20°C)에서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50~70% 수준으로 급감하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로 저온에서도 70~80% 수준의 주행거리 유지가 가능한 점이 특징

□ (소재) IRA 발효로 이차전지 소재 시장도 주목,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에도 눈길

- 테슬라, IRA 대응을 위해 이차전지 업체에 중국산 소재 배제를 요구하며 공급망 재편을 촉구
 - IRA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일본 포함)에서 40% 이상('23년) 추출·가공된 경우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비중은 매년 10%씩 높아져 '29년 80%까지 확대될 예정

- 이에 테슬라는 보조금 규정 충족을 위해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IRA에 저촉되지 않는 소재 적용을 주문하였고 양사는 국내 신규 소재 업체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IRA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24.하반기부터 중국산 소재를 대체한 이차전지를 생산할 방침
 - ※ CATL의 이차전지는 주로 중국 시장용 전기차에 채용돼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의 이차전지는 북미 시장용 전기차에 보급돼 중국산 소재 사용 시 IRA 보조금 수혜가 불가
- 테슬라 등을 필두로 주요 전기차 업체의 중국산 배제에 따라 韓 양극재·음극재 소재 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
- 한편 이차전지 품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차세대 소재³⁾로 ‘실리콘 음극재’가 각광
 -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에 실리콘산화물(SiOx), 실리콘탄소복합체(SiC), 퓨어실리콘(Pure Silicon) 등을 첨가한 소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충전시간도 짧고, 에너지 밀도 및 수명 등도 획기적으로 높으며 중국이 과점중인 흑연 공급망 탈피 등도 가능해 주목
 - ※ 흑연은 탄소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를 저장하는 반면, 실리콘은 탄소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해 흑연 대비 단위당 에너지 용량이 약 20배가량 높은 점이 특징. 또한 에너지 밀도도 흑연은 350mAh/g이나 실리콘은 4배 더 높은 1,500~2,000mAh/g 수준
 - 특히 충전시간의 경우 흑연 음극재를 사용한 이차전지는 최소 20분에서 최대 10시간까지의 충전 시간이 소요되나 실리콘 음극재는 5분 만에 완충이 가능해 차세대 소재로 부각
 - 이에 글로벌 소재 업체들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에 집중,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
 - ※ (참고) LG화학은 실리콘 음극재(특성상 충전 시 네 배가량 팽창·수축하며 부서지는 현상 발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100% 실리콘으로 구성된 퓨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 중인 상황
 - 글로벌 음극재 시장은 '23년 75억 달러(약 10조 600억 원) → '30년 219억 달러(약 28조 1,800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실리콘 음극재는 '30년 전체 음극재 시장 중 25%(7조 2,000억 원)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SNE리서치, '23.9.4일)

2) 수출 동향

□ '23.8월 축전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한 7.4억 달러 형성

- (품목별) 역대 8월 기준 '22년 최대 수출치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
 - (축전지 : 6.8억 달러, $\Delta 22.8\%$)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사의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조정으로 전기차용(2.2억 달러, $\Delta 19.4\%$) 축전지 수출 등은 감소. 에너지저장장치용(1.7억 달러, $\Delta 19.5\%$)도 하락 폭($\Delta 12.6\%$)이 전월 대비 확대되면서 역성장

3)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크게 4가지로 구분. 특히 음극재는 이차전지 재료 원가의 14%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며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



- (부분품 : 0.6억 달러, $\Delta 1.8\%$) 미국·폴란드 등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부분품 수출의 20~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홍콩 포함) 등의 부진으로 감소
- (지역별) 일본·대만 등은 상승한 반면 미국·중국(홍콩 포함) 등의 주요 교역국은 감소
 - 미국(3.5억 달러, $\Delta 11.8\%$)은 ESS용(1.1억 달러, 29.9% \uparrow), 부분품(0.2억 달러, 6.2% \uparrow)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용(1.5억 달러, $\Delta 14.7\%$) 하락 등으로 2개월 연속 역성장
 - 중국(홍콩 포함, 0.5억 달러, $\Delta 26.2\%$)은 축전지(0.3억 달러, $\Delta 24.9\%$)·부분품(0.2억 달러, $\Delta 28.1\%$) 등의 감소로 하락 지속. 독일(0.5억 달러, $\Delta 58.1\%$)도 축전지 수요 부진 등으로 내림세
 - 일본(0.4억 달러, 14.9% \uparrow)은 ESS용(0.3억 달러, 12.6% \uparrow) 수요 호조 등으로 7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 대만(0.3억 달러, 57.6% \uparrow) 또한 ESS용(0.2억 달러, 116.4% \uparrow)을 중심으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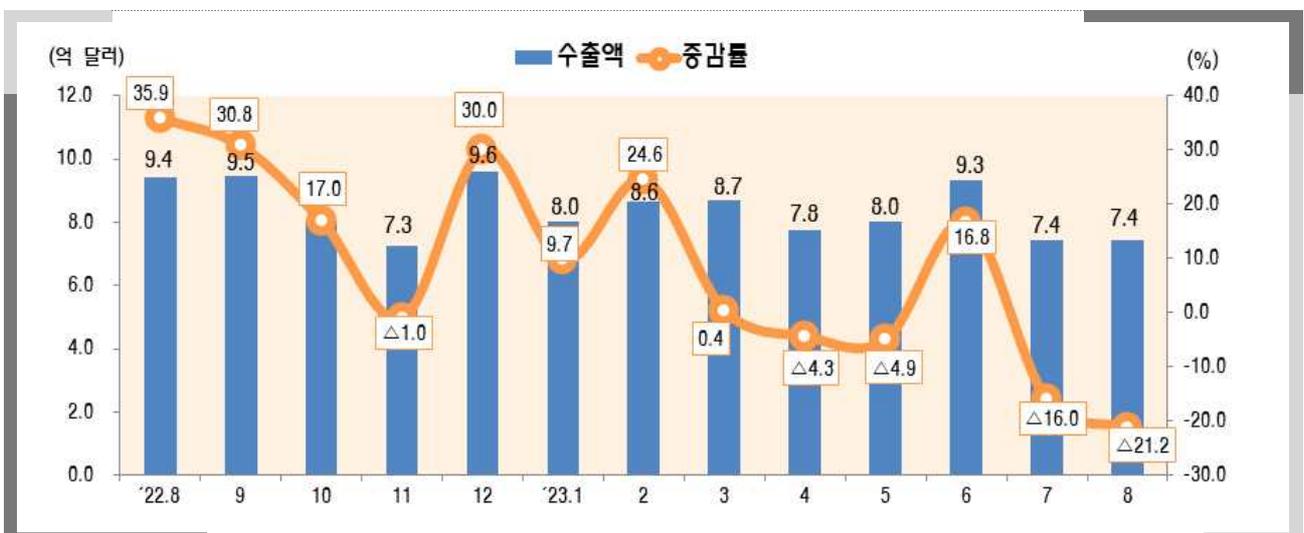
표 1-12 |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축전지	9.4 (35.9)	9.5 (30.8)	8.0 (17.0)	7.3 ($\Delta 1.0$)	9.6 (30.0)	8.0 (9.7)	8.6 (24.6)	8.7 (0.4)	7.8 ($\Delta 4.3$)	8.0 ($\Delta 4.9$)	9.3 (16.8)	7.4 ($\Delta 16.0$)	7.4 ($\Delta 21.2$)
축전지	8.7 (41.3)	8.8 (34.2)	7.5 (19.1)	6.7 ($\Delta 1.3$)	8.9 (32.4)	7.5 (13.8)	8.1 (28.9)	8.1 (1.9)	7.2 ($\Delta 3.1$)	7.4 ($\Delta 4.3$)	8.7 (18.3)	6.8 ($\Delta 17.0$)	6.8 ($\Delta 22.8$)
부분품	0.7 ($\Delta 10.7$)	0.6 ($\Delta 7.3$)	0.5 ($\Delta 9.5$)	0.6 (1.5)	0.6 ($\Delta 0.2$)	0.5 ($\Delta 25.6$)	0.5 ($\Delta 20.2$)	0.6 ($\Delta 14.4$)	0.5 ($\Delta 18.3$)	0.6 ($\Delta 12.1$)	0.6 (1.6)	0.6 ($\Delta 4.8$)	0.6 ($\Delta 1.8$)

자료 : IITP, KTSPi

그림 1-16 |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 축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8월 당월				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1	미국	41.1	50.0	41.1	미국	3.5	-11.8	47.0	31.2	22.6	47.7
2	독일	10.4	5.0	10.4	중국(홍콩)	0.5	-26.2	6.5	3.2	-33.3	4.9
3	중국(홍콩)	6.8	-33.7	6.8	독일	0.5	-58.1	6.5	5.2	-26.5	8.0
4	일본	4.7	35.0	4.7	일본	0.4	14.9	4.8	3.0	19.8	4.6
5	베트남	4.6	17.9	4.6	대만	0.3	57.6	3.7	1.9	64.3	2.9
6	폴란드	3.2	-44.4	3.2	인도	0.3	-21.0	3.4	2.4	105.0	3.6
7	헝가리	3.1	20.7	3.1	벨기에	0.2	69.4	3.2	1.9	311.3	3.0
8	인도	2.4	353.3	2.4	폴란드	0.2	-34.9	2.8	1.3	-41.6	2.0
9	대만	2.2	190.9	2.2	베트남	0.2	-46.8	2.7	1.9	-48.8	2.9
10	호주	1.9	-8.3	1.9	호주	0.1	-3.7	1.7	1.2	-20.8	1.8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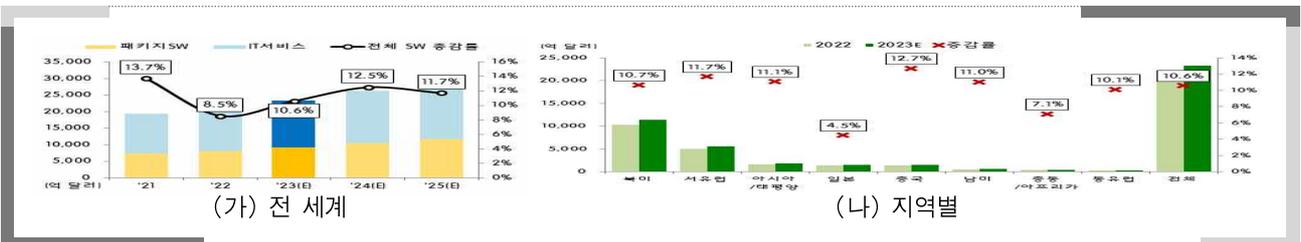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글로벌 전역에서 성장을 기록하며 '23년 전 세계 SW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시장 전망) IT서비스와 패키지SW가 성장폭을 확대하면서 '23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조 3,32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Gartner, '23.6월)
 -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전산업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SW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
 - (IT서비스 : 1조 4,209억 달러, 8.8%↑) 클라우드 내 애플리케이션 추가, 기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고성장(22.6%↑)을 달성한 서비스형 인프라(IaaS) 부문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
 - ※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8.5%↑), 컨설팅(11.0%↑), 인프라 구현 및 관리(5.5%↑),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7.4%↑) 등 주요 부문 성장을 기대.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빅테크 업체의 데이터센터 증설 연기 등으로 하드웨어 지원 분야는 소폭 감소(△2.0%)를 예상
 - (패키지SW : 9,117억 달러, 13.5%↑) 업체들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자동화 등 SW 혁신 및 체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 이에 따라 인프라 SW(14.9%↑), 기업 애플리케이션 SW(13.4%↑) 등 주요 패키지가 성장을 달성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대
- (지역별) 북미·서유럽·아시아/태평양 등 글로벌 전역에서 성장을 예상
 - 중국(12.7%↑)이 최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10.7%↑)·서유럽(11.7%↑)·아시아/태평양(11.1%↑) 등 대부분 지역이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 한편 '22년 일본(△9.6%) 및 동유럽(△3.6%) SW 시장은 위축됐으나, 올해 IT서비스 및 패키지 SW가 동시에 상승 전환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 '23년 일본 및 동유럽 SW 시장 성장률 전망치 : (일본) 전체 4.5%↑, IT서비스 3.5%↑, 패키지SW 8.1%↑, (동유럽) 전체 10.1%↑, IT서비스 9.7%↑, 패키지SW 10.5%↑

그림 1-17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3.6.

□ 국내 IT서비스 업체, 생성형 AI 적용 서비스 구축 등 핵심 사업 영역 확대를 도모

- 삼성SDS는 데이터전문기관 선정 및 생성형 AI 솔루션·플랫폼 개발, LG CNS는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사업 역량 증명 및 생성형 AI 기반 협력 강화, SK C&C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구축 등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표 1-14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주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에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인력,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ightics AI' 기반 분석 역량, 데이터 관리·보안 기술력, 다양한 분야의 고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민간기업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를 포함한 가명정보(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를 삭제 및 대체해 식별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정보)를 결합하는 전문기관 - 동 사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비금융 가명정보를 모두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및 기관에 제공할 예정 - 이에 따라 안전하게 결합된 가명정보가 여러 산업의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이용되는 등 활용성 확대에 기여할 전망 • 업무 생산성 확대에 기여하는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플랫폼을 공개하며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 혁신'을 선도할 것을 공언하는 등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에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9.12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연례 행사 'REAL Summit 2023'을 개최해 생성형 AI를 통해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 선도를 선언하고, 쉽고 간편하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 'Simply Fit, Simply Chat'을 발표 - 단순 반복 업무만 자동화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뛰어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메일·메신저·영상회의·데이터 저장 등 공통 업무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지적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Brity Copilot 솔루션을 공개 ※ Brity Copilot은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지원을 통한 보안 강화 등의 장점을 보유 - 기업의 데이터·지식 자산·업무 시스템 등 IT 자원을 한곳에 모아 손쉽게 공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FabriX도 공개 ※ FabriX를 통해 모든 업무 시스템과 다양한 LLM(거대 언어 모델)을 쉽고 간편하게 연결함에 따라 하이퍼오토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저장·전처리 등을 SCP(삼성 클라우드 플랫폼)를 통해 지원함에 따라 강력한 보안 상태를 제공 - 한편 동 사는 ERP·SCM·HCM 등 핵심 업무 시스템,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시범 적용해 시스템 개발 및 성능 검증, 문서 작성 등 업무 효율 증대가 가능함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클라우드의 판매 및 서비스 부문 파트너사로 선정된 가운데 생성형 AI 기반 기술·사업 협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파트너 어워즈 2023'에서 한국의 판매 및 서비스 2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돼 고객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역량을 증명 ※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즈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고객에게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올해는 판매·서비스·산업 솔루션·공공·사회적 영향 등 총 1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동 사는 LG 계열사를 포함해 국내 주요 게임 업체, 국내외 물류 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 고객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등 실적을 인정받아 '판매 파트너(Sales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 ※ 판매 파트너는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전환 혁신을 이끈 기업에 수여 - 또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통합 시스템 설계, 데이터 저장소 구축 및 편리한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서비스 파트너(Services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 ※ 서비스 파트너는 고객 비즈니스와 구글 클라우드를 최적으로 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수여 - 한편 '23.8.29일 구글 클라우드와 최고임원회의를 진행해 생성형 AI 신기술 적시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핫 라인 구축 등 생성형 AI 및 구글 클라우드 확산 관련 기술적·사업적 협력 방안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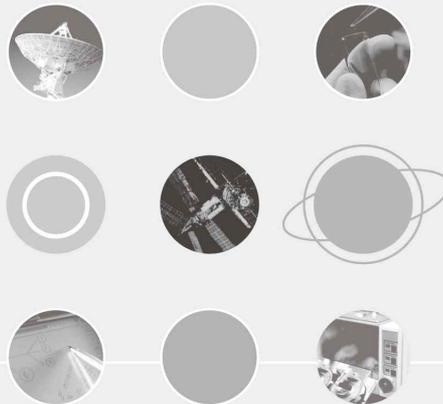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 매매 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해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구축에 착수 - 넥스트레이드가 '24. 하반기 진행할 대체거래소의 상장증권 및 주식예탁 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지원하는 다자간 매매 시스템과 운영·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 ※ 넥스트레이드는 '22.11월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증권사(19)·증권 유관기관(3)·IT 기업(4) 등 34개 출자기관이 공동 설립한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 이에 따라 시세정보·주문·체결 등 다자간 매매 거래 핵심인 '채널·매칭엔진 시스템',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과 연계해 투자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분배 시스템', 상품정보관리·각종 거래 통계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매매지원 시스템' 등 다자간 상품 매매 체결·운영·관리에 필요한 거래 시스템 전반을 구축할 계획 - 장 종료 후 종가 기준으로 상품 정보를 구성해 정규 거래 과정과 같이 야간 연장 거래가 가능한 '정규 거래 시간 외 연장 거래' 서비스도 구현할 예정 ※ 이를 통해 직장인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 편리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장 마감 후 공시, 해외증시 개장 상황까지 거래에 반영되는 등 여러 이점이 존재 - 또한 대체거래소 주요 시스템과 데이터 자산 보호 및 비즈니스 연속성 담보를 위한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하고, 백업 시간 단축 및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한 데이터 백업 체계도 마련할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거래소 및 대체거래소 비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거래소(KRX)</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체거래소(ATS)</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채권 등 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합거래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소의 상장주식, 예탁증권 매매 시스템을 대체하는 거래소 ※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시장 감사 등 공적 역할은 없으며 상장·비상장 주식, 기타 토큰 증권 등에 대한 거래 기능만 지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설립 시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2.11일(대한증권거래소 설립 기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7.19일 예비인가 • '24. 하반기 출범 예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거래 시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 외 연장 거래 가능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유동성에 기반한 안정적 거래 • 신규 상장 기능, 시장 감시 기능, 자율 규제 기능, 청산 결제 기능을 보유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주식 거래 체결 • 중간 가격 체결, 호가 단위 세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td> </tr> </tbody> </table>	구 분	한국거래소(KRX)	대체거래소(ATS)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채권 등 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합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소의 상장주식, 예탁증권 매매 시스템을 대체하는 거래소 ※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시장 감사 등 공적 역할은 없으며 상장·비상장 주식, 기타 토큰 증권 등에 대한 거래 기능만 지원 	설립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2.11일(대한증권거래소 설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7.19일 예비인가 • '24. 하반기 출범 예정 	거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 외 연장 거래 가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유동성에 기반한 안정적 거래 • 신규 상장 기능, 시장 감시 기능, 자율 규제 기능, 청산 결제 기능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주식 거래 체결 • 중간 가격 체결, 호가 단위 세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구 분	한국거래소(KRX)	대체거래소(ATS)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채권 등 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합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소의 상장주식, 예탁증권 매매 시스템을 대체하는 거래소 ※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시장 감사 등 공적 역할은 없으며 상장·비상장 주식, 기타 토큰 증권 등에 대한 거래 기능만 지원 														
설립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2.11일(대한증권거래소 설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7.19일 예비인가 • '24. 하반기 출범 예정 														
거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거래 외 연장 거래 가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유동성에 기반한 안정적 거래 • 신규 상장 기능, 시장 감시 기능, 자율 규제 기능, 청산 결제 기능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주식 거래 체결 • 중간 가격 체결, 호가 단위 세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I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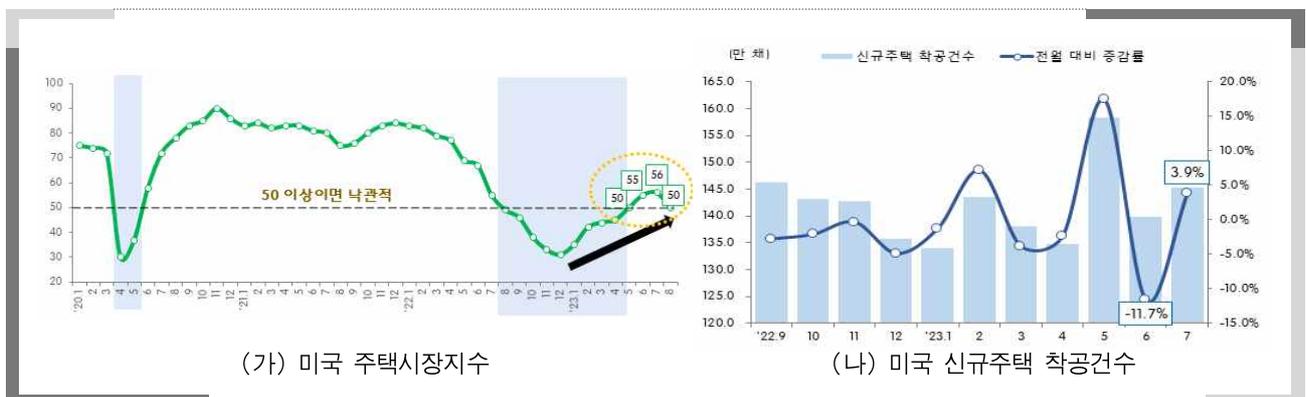
II 트레이드 GPS⁴⁾

1 미국 - 가정용전기기기

□ 주택 경기 반등 시그널, 친환경·스마트 가전 등의 수요 증가 등으로 미국 가정용 전기기기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

- 美 건축 사이클이 연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경기 회복이 기대
 - 미국 연준(Fed)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기준금리 인상 행보('22.3월 0.5% → '23.7월 5.5%)를 지속하였으나 '23.8월 미국의 실업률이 18개월 만에 3.8%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연말부터는 추가 금리인상 중단 및 동결을 시사
 - 이에 따라 얼어붙었던 미국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23.5월부터 미국의 주택시장지수(HMI)⁵⁾는 4개월 연속 50을 상회하였고, '23.7월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건수도 증가 추세(전월 대비)로 전환되는 등 美 주택경기 여건의 회복 신호가 관측(그림 2-1 참고)
 - ※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21.8월 3.03% → '23.2월 6.19% → 8월 7.31%)으로 기존주택 매매거래('23.8월 판매건수는 407만 채, 전월 대비 $\Delta 2.2\%$)가 냉각되면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 이에 밀레니얼 세대의 생애 첫 주택 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주택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신규주택 판매건수(71.4만 채, 2.2%↑)는 증가
 - 이러한 美 주택시장 회복과 함께 가전 수요도 동반 상승하면서 미국 가전제품 시장은 '23년 584.8억 달러 → '28년 673.8억 달러(CAGR 2.88%↑)로 성장 전망(Statista, '23.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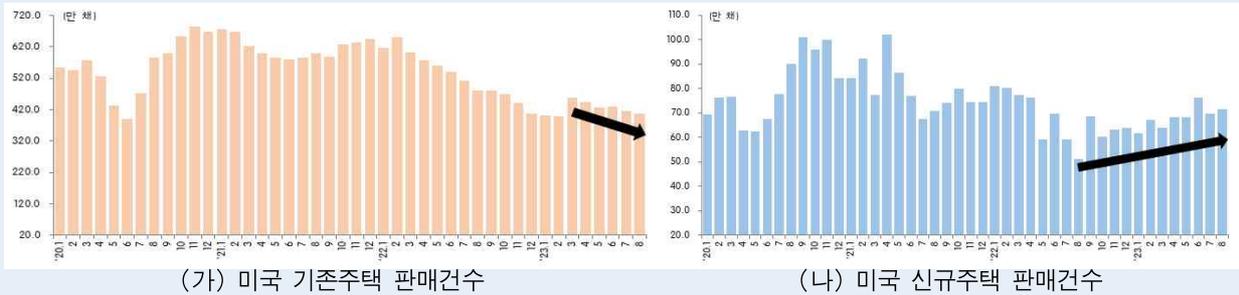
그림 2-1 미국 주택시장지수 및 신규주택 착공건수 추이



자료 :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2023.8. / U.S. Census Bureau, Trading Economics, 2023.8.

4)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5) 주택시장지수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시장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판매 전망이 낙관적임을, 50 미만일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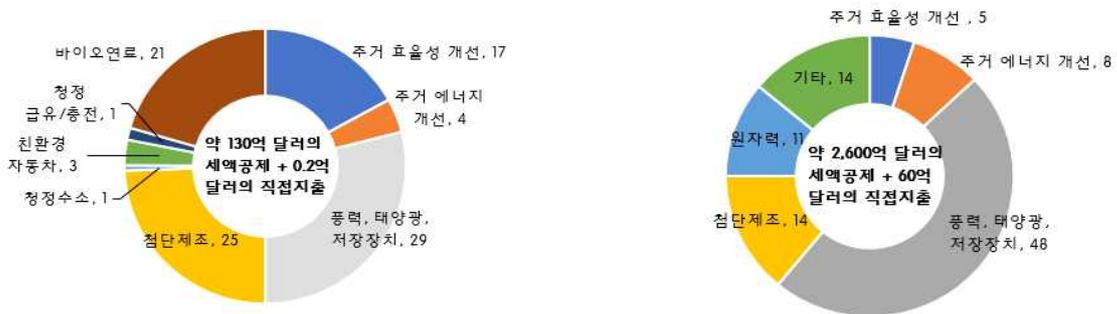
○ (참고) 미국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판매건수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2023.8. / 전국부동산협회(NAP), 2023.8.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 등으로 고효율·친환경 가전으로의 교체가 가속
 - **(인플레이션 감축법)** 美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전체 1조 1,720억 달러) 중 친환경/기후 변화 관련 지원에 3,690억 달러(2,600억 달러는 세액공제, 1,090억 달러는 직접지출 예정)를 분배 하였으며 주거관련 부문에도 세액공제 혜택 비중을 13%가량 배분해 눈길
 - 특히 히터·에어컨 등을 냉·난방 히트펌프⁶⁾로 설치 및 교체 시 소요 비용의 30%(최대 2,000달러 까지)를 세액공제로 제공하고 리베이트(직접지출)도 최대 8,000달러를 제공
 - 이외에도 오래된 전기스토브, 오븐, 의류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각각 840달러씩 리베이트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혜택을 부여

그림 2-2 | 2023년 또는 2031년까지의 세액공제 및 직접지출 비중(%)



자료 : 미국 의회예산처, 삼성증권, 2022.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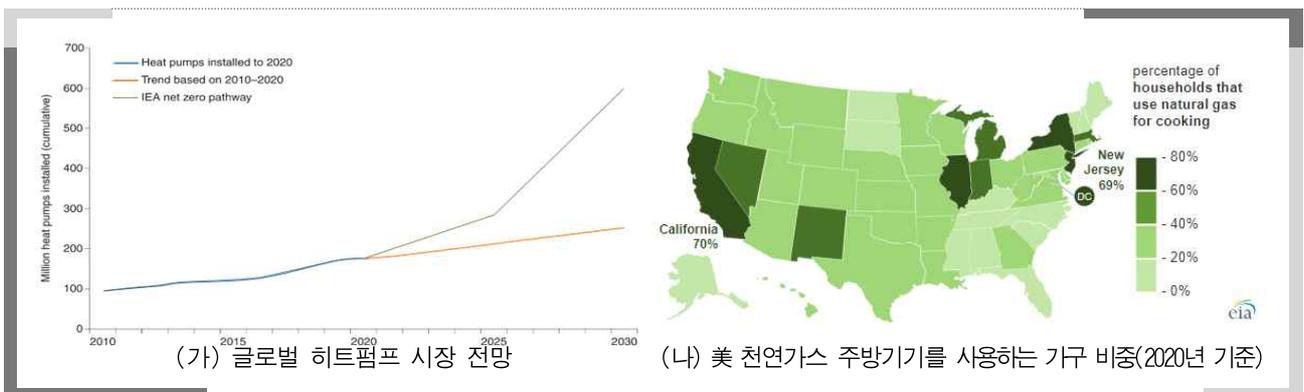
- **(에너지 효율성 가이드라인)** 美 에너지부는 가정 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27년부터 적용)을 발표('23.2월). 향후 30년간 600억 달러의 전기요금 인하, 2억 3,00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

6) 히트펌프는 구매 설치 시 초기 비용(약 3,000~6,000달러)이 크게 소요되는 단점이 존재하나,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도 0에 가까우며 친환경 냉난방이 가능해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현재 고효율·친환경 제품으로 각광



- ※ '22.12.19일에 발표된 '110대 가전제품 효율 강화'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으로 전구, 온수기, 의류 건조기 등 외에 가정용 냉장고(191L~411L), 세탁기(자동/반자동/통/드럼)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갱신한 지침
- 또한 '29년부터 판매되는 일반 전기 온수기는 히트펌프 기술을, 가스 온수기는 콘덴싱(외부로 빠져나간 열을 모아서 다시 난방 등에 활용하는 방식)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온수기 규정도 발표하며 친환경 가전으로의 교체를 촉진('23.7월)
- (가스레인지 사용 제한) 美 뉴욕주·캘리포니아주는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호흡기 질환 유발 및 기후변화 초래 등을 방지하고자 가스 관련 가전 퇴출을 주도
- 먼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는 가스레인지·가스오븐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주방기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도입('19년)
- 이어 뉴욕주도 가스를 사용하는 전자제품(가스레인지·가스보일러 등)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23.1월)하며 '25년 저층 신규 주택을 시작으로 '28년 말 고층 신규 대형건물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
 - ※ 뉴욕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년에는 40% 감축, '50년 85%를 줄일 계획
- 이에 따라 신규주택 건설 증가와 더불어 가스레인지 → 인덕션 등 전기스토브 교체 열풍이 확대 되면서 미국의 가정용전기기기 시장은 성장 전망

그림 2-3 |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 전망 및 美 천연가스 주방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중(2020년 기준)



자료 : IEA, Nature, 2022.9.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2.8.

- 사물인터넷 기술 고도화와 함께 최적의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美 스마트 가전 수요도 증가
 -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들은 스마트폰·인공지능 스피커 등과의 연결성 강화, 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스마트 가전으로 진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한층 더 제고 스마트 가전의 침투 증가로 스마트 홈 시장도 성장 전망
 - ※ 전 세계 스마트 홈 시장은 '20년 608억 달러 → '25년 1,78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OMDIA)
 - 특히 미국은 '25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스마트 홈 보급률(57%) 국가로 등극할 것으로 관측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 가능한 AI·IoT 가전기기 등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美 스마트 가전 시장('23년 99.5억 달러 → '27년 152.2억 달러)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Statista, '23.4월)

□ 글로벌 업체들은 고효율·친환경 수요 공략에 주력, 슈케이스·빌트인 등 혁신성도 제고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절벽을 극복하고자 연결성·에너지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제품에 주력

표 2-1 | 업체별 주요 동향

업체	주요 내용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IS 2023)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3'에 참가해 친환경·초연결·빌트인 가전을 앞세워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생활가전 제품의 생애주기(생산→유통→사용→폐기) 전반에 걸친 친환경 활동과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파타고니아) 등을 전시하며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조 - 또한 홈IoT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성이 강화된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를 소개. 내장된 스마트싱스를 통해 스위치·문열림 센서 등 자사의 가전제품과 80% 이상을 연동·제어할 수 있고 전작 대비 2배 이상 커진 32인치 스크린을 탑재해 연결된 다수의 기기를 한 눈에 확인·제어하기가 수월 - 뿐만 아니라 '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美 대표적 럭셔리 빌트인 브랜드 '데이코(Dacor)'가 미국 주방욕실 협회에서 '2023 혁신 쇼룸상'을 수상한 '데이코 키친 시어터'를 공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디자인의 트랜지셔널, 컴팩트한 공간을 활용하는 인피니티 라인 등의 빌트인 주방가전을 전시 - 이외에도 연결된 가전기기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목표 전력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시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소개 ※ 한편 삼성전자의 약 260여개의 가전제품이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 스타' 인증 등을 획득하였고 '스마트 싱스 에너지' 또한 업계 최초로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SHEMS)' 인증을 받아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을 내세워 공략을 강화할 방침 • (IFA 2023)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가전·IT전시회서 초연결, 초저전력, AI에 초점을 맞춘 가전 등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틱 청소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I 가전을 총 15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스마트싱스를 통해 가전관리 솔루션을 비롯한 AI 기능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사의 독자 기술인 '에코 버블'과 AI기능을 접목한 세탁기도 공개. 동 제품은 EU 에너지 규격의 최고 등급인 A등급 대비 전력 사용량이 40% 이상 낮은 점이 특징 - 또한 가전 이외에도 조명, 블라인드 등 다른 기업의 제품 300개 이상을 연동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선보여 주목 - 이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대로 합친 신제품 올인원 세탁건조기('비스포크 그랑데 AI')를 공개해 눈길. 해당 제품은 25kg의 대용량 세탁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13kg 건조기를 결합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점이 장점 •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가전 제품군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해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
삼성·LG 첫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싱스', 'LG씽큐'를 통해 서로의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전 생태계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결정. 가전 분야에서 유례없던 국내 업체 간 협업에 주목 ※ '22.1월 발족한 글로벌 스마트 홈 플랫폼 협의체인 'HCA'는 대표 의장사인 삼성전자(창립 멤버), LG 전자, 하이얼 등 15개의 국내외 업체가 참여. 특히 '23.9월부터 'HCA 표준 1.0'의 상용화가 본격 추진 되면서 양사의 협력도 진행된 것으로 분석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IS 2023) 美 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LG STUDIO' 등 빌트인 가전을 중심으로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는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48인치 프렌치도어 냉장고, 18인치 와인셀러, 24인치 식기세척기 등), LG 스튜디오 등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 특히 48인치 빌트인 프렌치도어 냉장고('23.5월 美 시장 출시)는 UP 가전을 적용해 눈길 ※ UP 가전은 한번 제품을 구매할 경우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가전을 의미 - 이외에도 스타일러 슈케어+슈케이스 등 혁신적인 제품과 LG씽큐와의 연동을 통해 가전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인공지능으로 가전의 고장·위험 등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소개 • (IFA 2023) 에너지 절약에 탁월한 고효율(냉난방 공조 기술을 탑재 등) 가전과 빌트인 가전을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춘 '인스타뷰' 오븐, 유럽 A등급 규격보다 10%가량 효율이 높은 식기세척기 등과 더불어 인덕션 중앙에 후드 환기 시스템이 탑재된 혁신적인 일체형 인덕션 등의 빌트인 가전을 소개 - 이외에도 GS건설과 협력하여 스마트 홈 솔루션의 미래 형태인 '스마트 코티지'를 전시. 특히 LG전자는 고효율 빌트인 가전 뿐만 아니라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써마브이 모노블럭')을 설치해 냉난방공조(HVAC) 분야에서 자사의 고효율 인버터 기술력을 강조. LG씽큐를 통해 기기 간 연동 및 제어도 가능



<p>LG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트인 가전) '22년 미국의 빌트인 시장 규모는 190억 달러로 단일 국가 중 최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동 사의 美 빌트인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 - 북미 시장에서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에 'UP 가전'을 결합한 가전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4.30일) • (UP 가전) '23.5월 美에 LG씽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속적인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UP가전 워시타워, 월오븐, 냉장고(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렌치도어 냉장고 48인치)를 첫 출시 - 이외에도 '22. 하반기, '23년 초에 출시한 가전도 UP가전 지원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美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패턴, 라이프스타일 등을 분석 반영해 美 시장을 공략 • 스마트 홈 솔루션인 가전용 AI칩 'DQ-C'와 가전 OS를 공개하며 내년부터 美를 시작으로 'UP가전 2.0' 서비스를 보급할 것이라 예고. 기존 물체 중심의 가전 사업을 서비스·구독 등으로 확장할 방침
<p>하이얼/GE어플라이언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요(일본), GE(미국), 피셔&파이클(뉴질랜드), 캔디(이탈리아) 등 프리미엄 가전 업체를 대거 인수하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에 박차 - '22년 동 사는 북미 지역을 비롯한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성장하였고 비중도 51%로 확대해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도 입지를 늘리고 있는 양상. 당장의 위협은 없겠으나 예의주시는 필요 - 한편 美 가스레인지 인체 유해 논란 확산에 따라 동 사는 '23년 선보인 쿡탑 28종 중 절반을 인덕션 모델로 채용하며 인덕션 라인업을 확대해 눈길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참고) HCA 표준 현황

표준	1.0	2.0
공개일	2023년 1월	2024년 1월 예정
적용 시점	2023년 9월	2024년 상반기 이후
주요 기능	전원 제어, 제품별 주요 모드 설정(풍량·세기 등)	기존 1.0 버전 기능에 에너지 관리 기능 추가
적용 제품	세탁기, 냉장고, TV,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오븐, 로봇청소기, TV, 식기세척기, 전기차 충전기 등

□ (수출 동향) 하반기 미국 주택 경기 회복 기조, 고효율·친환경 가전 교체 증가로 對美 가전용전기기기 수출은 3개월 연속 성장

-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장기화에 따른 수요 냉각 등으로 '22년 대미 가전용전기기기 수출은 소폭 반락하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성장세에 힘입어 개선이 기대
- **(연간)** '19년은 냉장고(12억 2,033만 달러, 25.4%↑), 세탁기(6,220만 달러, 64.5%↑), 전기청소기(752만 달러, 94.4%↑) 등의 수요 증가로 반등하며 성장 전환
- '20년도 전기청소기(3,826만 달러, 409.0%↑)의 급등, 식기세척기(1억 5,327만 달러, 34.3%↑)의 반등 등으로 20억 달러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상승 곡선을 지속
- '21년은 색채·디자인 요소를 강화한 오브제컬렉션 등의 판매 호조로 냉장고(24억 1,575만 달러, 50.3%↑), 식기세척기(2억 5,788만 달러, 68.3%↑) 등의 두드러진 성장세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며 30억 달러대를 상회해 눈길
- ※ 對美 가전용전기기기 역대 수출 Top3(억 달러) : (1위) '21년 32.4, (2위) '22년 31.6, (3위) '20년 22.2
- 다만 '22년은 전년 기저효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 하락하였으나 역대 수출 2위를 기록. 올해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됨과 동시에 친환경·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 블랙프라이데이 개최 등으로 회복 반등할 것으로 기대

- (월별) '23.6월은 美 주택경기 회복 시그널과 함께 냉장고 반등(1억 6,517만 달러, 21.0%↑)을 중심으로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성장 회복하였으며 '23.8월은 세탁기(1,761만 대, 36.4%↑), 식기세척기(1,854만 대, 27.4%↑) 등의 호조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

그림 2-4 |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2 | 대비 가정용전기기기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가정용 전기기기	207.0 (△18.9)	251.2 (△5.3)	235.2 (△31.3)	204.9 (△38.5)	180.1 (△36.1)	244.9 (△19.8)	300.1 (7.3)	298.1 (△8.2)	307.6 (△10.2)	300.7 (△17.0)	262.0 (10.3)	266.1 (13.8)	251.0 (21.3)
냉장고	126.5 (△35.2)	157.5 (△18.3)	155.7 (△40.2)	118.3 (△52.4)	100.7 (△48.6)	153.5 (△17.3)	191.6 (18.2)	179.8 (△14.5)	193.1 (△4.5)	169.3 (△21.4)	165.2 (21.0)	171.8 (42.3)	160.5 (26.8)
가정용 회전기기	52.0 (63.8)	70.9 (77.5)	56.1 (13.4)	59.4 (20.3)	52.7 (△1.8)	70.2 (△20.1)	81.2 (△0.2)	89.1 (12.1)	89.5 (△11.8)	99.5 (△4.7)	68.6 (△2.3)	67.5 (△14.1)	64.0 (23.1)
세탁기	12.9 (131.2)	21.9 (289.7)	20.8 (244.1)	24.4 (348.3)	18.7 (164.8)	24.6 (△20.0)	32.1 (△16.3)	29.8 (△23.4)	35.1 (△12.7)	39.1 (△10.0)	17.3 (△28.4)	20.2 (△36.5)	17.6 (36.4)
에어컨	7.0 (119.6)	6.0 (87.5)	5.8 (△40.0)	7.2 (△10.9)	5.0 (△42.9)	13.5 (14.0)	11.0 (28.3)	16.6 (113.9)	9.4 (△12.7)	10.3 (△28.2)	8.8 (0.7)	6.6 (△52.0)	6.8 (△3.9)
전기 청소기	1.6 (252.4)	0.4 (△34.3)	0.4 (△65.6)	0.3 (△64.4)	0.1 (△92.4)	0.0 (△99.1)	0.3 (△40.4)	0.1 (△3.0)	0.3 (△73.9)	0.8 (18.4)	1.1 (314.4)	0.1 (△88.4)	0.5 (△72.3)
식기 세척기	14.6 (△22.5)	22.5 (△11.0)	16.8 (△40.0)	16.9 (△47.8)	17.0 (△49.6)	20.6 (△25.0)	21.1 (△12.0)	23.5 (20.9)	24.7 (△31.4)	30.3 (0.6)	21.7 (△3.8)	23.0 (21.7)	18.5 (27.4)
난방 및 전열기기	19.9 (△0.9)	12.2 (△46.0)	15.9 (△32.9)	13.4 (△48.5)	17.9 (△25.8)	13.3 (△40.5)	20.0 (△27.4)	21.7 (△7.5)	19.5 (△32.3)	21.0 (△30.3)	19.6 (△16.4)	17.1 (△29.8)	16.3 (△18.2)
기타 가정용기기	8.6 (6.2)	10.6 (6.5)	7.4 (△16.7)	13.9 (52.9)	8.8 (4.6)	7.8 (△17.3)	7.2 (△15.5)	7.5 (△34.5)	5.5 (△45.8)	10.9 (△11.2)	8.6 (19.2)	9.7 (△4.0)	10.3 (19.9)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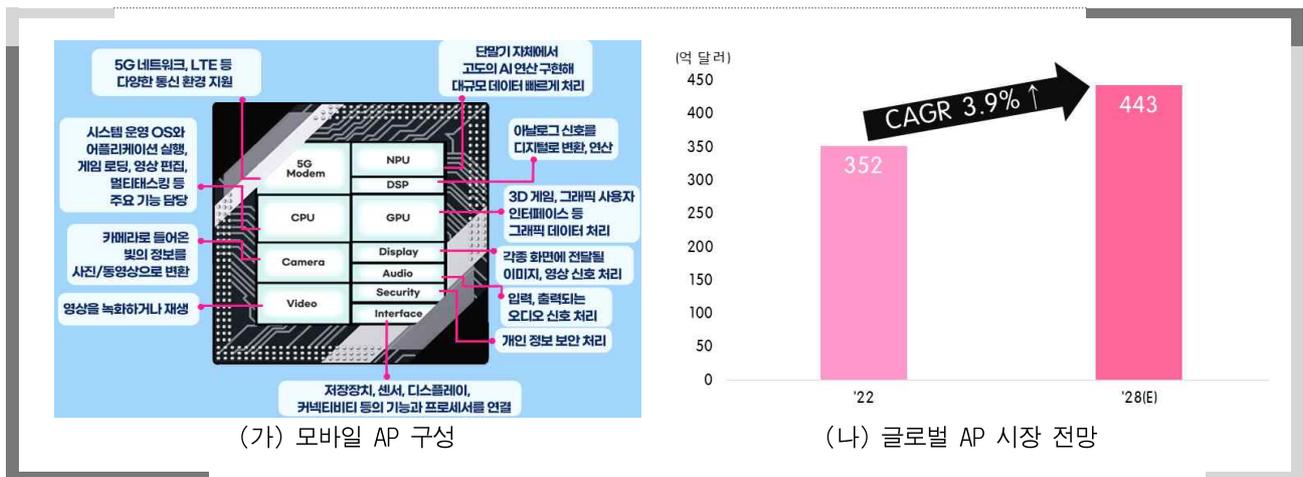


2 AP(Application Processor)

□ 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더불어 활용처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AP 시장은 확대 전망

- 주요 업체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 회복 기대, 차세대 기술 발달에 따른 XR·자율주행 등 신수요 발생 등으로 전 세계 AP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2년 연속 내림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업체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하반기 회복 기조에 접어들면서 낙폭 완화 후 내년 반등이 기대됨에 따라 모바일 AP 수요도 증가할 전망
 - ※ AP(Application Processor)는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DSP(디지털 신호 처리 프로세서), NPU(신경망처리장치), SPU(보안처리장치) 등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SoC(System on Chip)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IT기기의 응용프로그램 구동, 그래픽 처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 반도체
- 또한 5G·AI·IoT 등 최첨단 기술이 성장하는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 확대에 따른 XR 기기 시장 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으로 모바일뿐만 아니라 XR 기기 및 자동차 등으로 AP 수요처가 확대
 - ※ 혁신적인 성장 동력 부재, 수요 위축 등 스마트폰 시장 둔화에 따라 미디어텍·퀄컴 등 주요 모바일 AP 업체들이 사업 부진의 돌파구로 XR·차량용 AP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AP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2년 352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글로벌 AP 시장은 '28년 443억 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연평균(CAGR) 3.9% 성장률로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imarc, '23.2월)

그림 2-5 모바일 AP 구성 및 글로벌 AP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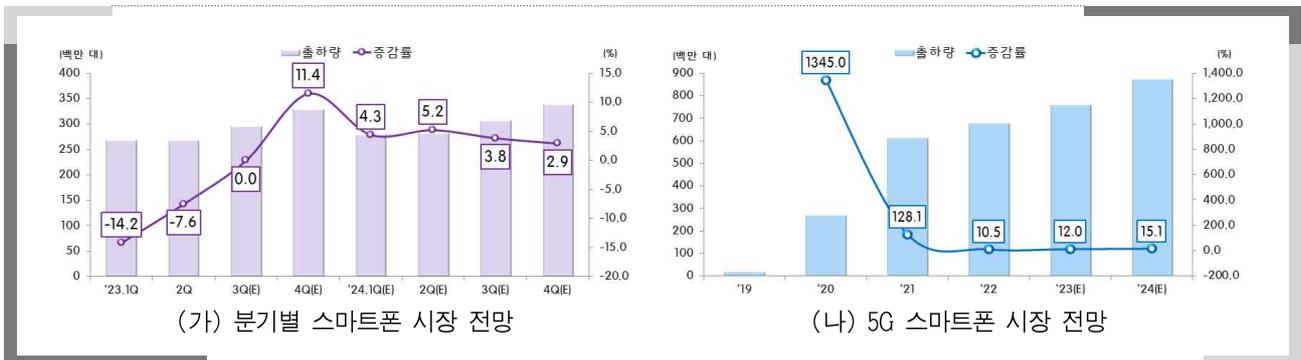
자료 : 삼성전자 / imarc, 2023.2.

□ 스마트폰 시장 회복, 5G·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모바일 AP 시장 호조 예상

- 내년 스마트폰 수요 회복 전망, 5G 스마트폰 보급 확대, 프리미엄 제품 비중 증가 등으로 전 세계 모바일 AP 수요는 성장 전망(SA, '23.6월 전망 및 '23.8월 실적 자료)

-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23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11억 6,480만 대로 2년 연속 하락할 전망
 - ※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 추이 : ('20년) $\Delta 8.0\%$ \rightarrow ('21년) 4.5% \uparrow \rightarrow ('22년) $\Delta 11.8\%$ \rightarrow ('23년E) $\Delta 2.8\%$ \rightarrow ('24년E) 4.0% \uparrow
- 분기별로는 '21.3분기부터 '23.2분기까지 8분기 연속 내림세를 지속. 특히 '22.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2억 9,120만 대를 기록해 '20.2분기(2억 8,330만 대, $\Delta 17.0\%$) 이후 처음으로 3억 대를 하회했으며, '23.2분기까지 2억 대 중·후반 규모를 유지하는 등 부진
- 다만 '23.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애플 등 주요 업체의 플래그십 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상승 궤도 진입이 예상되며, 과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전 세계 경기 회복 기조 진입 등으로 4분기 두 자릿수 성장률(11.4% \uparrow)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이후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 분기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23.1Q) $\Delta 14.2\%$ \rightarrow (2Q) $\Delta 7.6\%$ \rightarrow (3QE) 0.0% \rightarrow (4QE) 11.4% \uparrow \rightarrow ('24.1QE) 4.3% \uparrow \rightarrow (2QE) 5.2% \uparrow \rightarrow (3QE) 3.8% \uparrow \rightarrow (4QE) 2.9% \uparrow
- 이에 따라 '24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2억 1,140만 대를 기록하는 등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AP 수요도 동반 성장을 기대
 - ※ 다른 시장조사업체 IDC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하반기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내년(5.9% \uparrow)부터 '27년까지 4년 연속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전자신문, '23.3월)
- 한편 5G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 증가 등에 따른 고성능·고효율 모바일 AP 탑재량 확대도 전 세계 AP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전망
 - ※ '19년부터 출하량이 발생한 전 세계 5G 스마트폰 시장은 ('20년) $1,345.0\%$ \uparrow \rightarrow ('21년) 128.1% \uparrow \rightarrow ('22년) 10.5% \uparrow \rightarrow ('23년E) 12.0% \uparrow 로 지속 성장 후 내년 15.1% 증가한 1,510만 대를 기록할 전망(SA, '23.6월)
 - ※ 프리미엄 스마트폰(600달러 이상) 비중 추이(SA, '23.8월) : ('20년) 14.8% \rightarrow ('21년) 18.2% \rightarrow ('22년) 20.7%

그림 2-6 | 분기별 스마트폰 시장 및 5G 스마트폰 시장 추이 및 전망



자료 : SA, 2023.6.(전망 자료) 및 2023.8.(23.2분기까지 실적 자료)

○ (참고) 전 세계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

- '23.2분기 전 세계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1위, 미디어텍) 30%, (2위,



퀄컴) 29%, (3위, 애플) 19%, (4위, UNISOC) 15%, (5위, 삼성전자) 7% 순으로 자리매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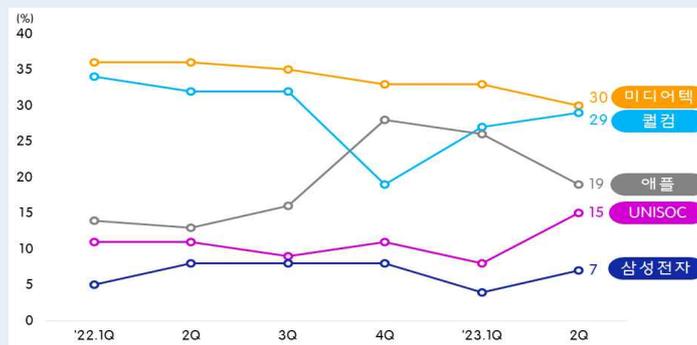
※ 아이폰에 자체 모바일 AP를 탑재하는 애플을 제외하면 전 세계 모바일 AP 시장은 미디어텍과 퀄컴이 절반 이상을 과점하는 2강 체제를 유지

- 중국 업체의 중저가 스마트폰向 보급형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키워온 미디어텍은 '21.12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디멘시티 9000'을 출시하며 고성능 모바일 AP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저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

※ 미디어텍은 디멘시티 9000 시리즈(고가), 디멘시티 8000 시리즈(중가), 디멘시티 6000 시리즈(중저가) 등 가격대별로 모바일 AP를 세분화해 시장을 공략

- 한편 삼성전자는 발열,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플래그십 제품 갤럭시 S23 시리즈에 자사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탑재가 무산되면서 '23.1분기 점유율 4%에 그치는 등 부진을 기록했으나 2분기엔 3%p 증가한 7%로 회복

<업체별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3.9.

□ 5G·AI·IoT 등 신기술 발전 등에 따라 XR 기기·자율주행차 등 AP 활용처가 확대

○ (XR) 5G·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 발전, 신규 업체 진출에 따른 시장 경쟁 격화 등으로 XR 시장이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XR 기기용 AP 수요도 동반 성장 기대

- 5G 상용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확대, 관련 게임 출시, 영상·게임 외 의료·제조·안전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확대 등 긍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XR 수요는 증가

- 또한 시야각·해상도·주사율 향상, 시선 추적, 현실 세계 디지털화 기술 발전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고도화 등으로 글로벌 XR 시장 규모는 '22년 351억 4,000만 달러에서 '30년 3,45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평균(CAGR) 33.1% 성장을 기대(한국저작권위원회, '23.6월, 원소스 Presedence Research)

- XR 시장이 성장하면서 빅테크 업체 메타가 과점 중인 XR 기기 시장 내 애플·삼성전자 등 글로벌 업체의 진입이 예고되는 등에 따라 전 세계 XR 기기 출하량은 '22년 1,800만 대에서 '25년 1억

1,000만 대까지 고성장(CAGR 82.8%↑)할 전망(한국경제, '23.5월, 원소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 이에 따라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처리, 사용자 움직임 측정, 시선 추적, 위치 측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인 XR 기기용 AP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그림 2-7 | XR 산업 체인 구성 및 XR 기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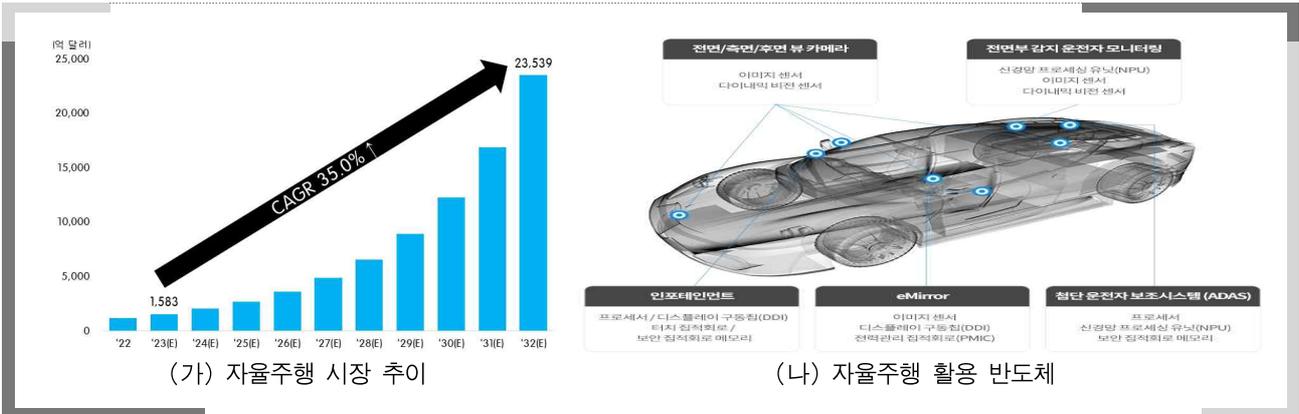


자료 : 메타버스 리포트, 딜로이트, 2022.6. / 한국경제, 2023.5., 원소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 **(차량용)** 자율주행 적용 및 연구 활성화로 ADAS, 인포테인먼트 등의 기능 적용이 확대되면서 차량용 AP 시장도 성장 전망
 - AI·IoT 등 최첨단 기술 성장, 스마트시티 개발 확대에 따른 자율주행 전용 도로 설계 및 V2X(Vehicle to everything) 강화 등으로 반자율주행 도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완전 자율주행 연구도 활성화
 - 이에 따라 '23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전년(1,218억 달러) 대비 30.0% 성장한 1,58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32년 2조 3,539억 달러까지 연평균(CAGR) 35.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Presedence Research, '23.3월)
 -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이 확대
 - ※ 글로벌 ADAS 시장 규모는 '22년 309억 달러에서 '30년 651억 달러까지 연평균(CAGR) 9.7% 성장할 전망 (Market and Markets, '23.2월)
 - 또한 차량 탑승자들의 즐길 거리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도 늘어나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VI) 적용이 확대되는 등 자동차 기능이 고도화
 - ※ '21년 141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23년 164억 달러 달성 후 '28년 283억 달러까지 연평균(CAGR) 11.6% 확대될 전망(Market and Markets, '23.7월)
 - 이에 따라 인포테인먼트 기능 제어부터 그래픽 및 인터페이스 등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고성능 차량용 AP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그림 2-8 자율주행 시장 추이 및 활용 반도체



자료 : Presedence Research, 2023.3. / 삼성전자

□ (업체 동향) AP 업체들은 기술력 강화와 더불어 XR·차량용 등 신수요처 적극 공략

- 스마트폰, PC 등 기존 시장을 겨냥하는 제품 성능을 고도화하면서도 XR, 차량용 등 신규 시장 내 입지 확보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제품 개발 및 출시를 확대

표 2-3 글로벌 AP 업체 동향

업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AP를 출시하는 한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18년 자동차용 프로세서 브랜드 '엑시노트 오토'를 출시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으며, 아우디·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제공하며 입지를 확대 ※ 삼성전자는 각 응용처에 맞춰 인포테인먼트용 'V시리즈', ADAS용 'A시리즈', 텔레매틱스 시스템용 'T시리즈' 등으로 제품군을 세분화 - 한편 '23.6월 현대자동차에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트 오토 V920'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양 사는 '25년 공급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 ※ 엑시노트 오토 V920은 차세대 GPU·NPU 등을 탑재해 주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고사양 게임 구동 등을 지원해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등 성능을 대폭 향상 • XR 기기용 AP 개발 및 XR 기기 출시 계획을 구상하는 등 XR 시장 공략 행보도 적극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에 따르면 동사는 XR 기기용 AP 사업 전략 구성을 시작했으며, 기존에 개발한 엑시노스 AP를 XR 기기에 최적화하거나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한국경제, '23.5월) - 한편 '23.2월 퀄컴·구글과 XR 기기 개발을 위한 협업 진행을 발표하는 등 칩뿐만 아니라 기기도 출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겨냥하며 고성능 모바일 AP를 잇따라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가폰을 겨냥한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펼치다 '21.12월 프리미엄폰 탑재를 위한 '디멘시티 9000'을 출시. 이후 '22.6월 성능을 개선한 '디멘시티 9000+'를 공개하는 등 폭넓게 시장을 공략 ※ 디멘시티 9000+는 오버클럭(CPU 작동 주파수를 원래 사양보다 높여 성능을 강화), 새로운 GPU 및 5G 모뎀 적용 등을 통해 전작 대비 CPU 성능 5%, GPU 성능 10% 향상됐으며 통신속도, AI 연산 효율, 절전 성능 등을 강화 - 또한 '22.11월 GPU 성능을 개선한 '디멘시티 9200'을 공개했으며, '23.5월엔 AI 사진 보정 기능, 5G 전파 접속 조건에 따른 전력 소모량 자동 조절 기능 등을 도입한 '디멘시티 9200+'를 공개하는 등 모바일 AP 고도화를 지속하며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 글로벌 벤치마크 포럼 안투투에 따르면 디멘시티 9200의 GPU 점수는 55만 점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8+ 1세대(42만~47만 점)를 앞질렀으며, CPU·GPU 등을 통합한 총점도 더 높은 수준 달성 • 글로벌 GPU 1위 업체인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차량용 AP를 출시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5월 엔비디아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동 기술 협력 계획을 발표했으며, 차량용 AP '디멘시티 오토'에 엔비디아의 GPU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스마트 캐빈 솔루션을 개발하고 '25년 출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개발, 자동차의 디지털 기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AP 출시 등 차량용 사업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스웨덴 자동차부품업체 비오니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자회사 어라이버를 인수하고, '22년 차량용 통합 플랫폼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를 공개하는 등 자동차용 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Snapdragon Digital Chassis)는 Digital Cockpit(운전 공간 디지털화)·Ride(자율주행)·Auto Connectivity(통신)·Car-to-cloud 플랫폼 등 차량 기술 전 분야를 수평적으로 연결한 스냅드래곤 AP 기반 자동차용 클라우드 연결 플랫폼으로 뛰어난 개방성·확장성을 보유 -또한 '23.1월 자율주행·ADAS·Digital Cockpit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AP 제품군을 공개 후 주요 고객사에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4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 • AR·VR 등 XR 기기용 AP를 잇따라 출시하며 향상된 기술력을 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역대 최초로 독립형 AR·VR 헤드셋 전용 칩인 '스냅드래곤 XR1'을 공개했으며, 이후 스냅드래곤 XR2 1세대, 스냅드래곤 XR2+ 1세대 등을 출시하며 지속적으로 성능 및 효율을 개선 - '22.11월엔 전작 대비 크기와 소비 전력을 대폭 줄이고, AI 기술을 탑재하는 등 성능 및 기능을 고도화한 AR 기기용 '스냅드래곤 AR2 1세대'를 공개 ※스냅드래곤 AR2 1세대는 AR 프로세서·AR 보조 프로세서·통신칩 등 3개 칩으로 구성. 핵심 역할을 하는 AR 프로세서는 최대 9개 카메라를 동시 지원하며, 기기 반응 속도 지연시간을 개선. 또한 AI 가속기를 적용해 입력 상호작용 속도를 높이고 움직임 측정, 위치 측정 등의 정확도를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Mac)·아이폰 등 자사 제품에서의 탑재를 위한 AP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기존에 맥(Mac) 등 PC에 CPU, I/O, 보안 등을 위해 다수의 칩을 사용했으나, '20.11월 최초로 이들을 통합하고 성능 및 전력 효율을 증대한 단일 SoC 'M1'을 공개. 이후 'M1 프로·맥스·울트라', 'M2' 등 차세대 제품을 지속 개발 - 올해 1월에는 400억 개 트랜지스터, 200GB/s 통합 메모리 대역폭, 최대 32GB의 고속·저지연성 통합 메모리를 제공하는 'M2 프로'와 670억 개 트랜지스터, 400GB/s 통합 메모리 대역폭, 최대 96GB의 고속·저지연성 통합 메모리를 제공하는 'M2 맥스'를 공개 - 6월에는 1,340억 개 트랜지스터, 800GB/s 통합 메모리 대역폭, 최대 192GB 메모리 제공 등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M2 울트라'를 선보이는 등 CPU·GPU·통합 메모리 확장을 통해 칩 수준을 지속 향상 - 한편 9월 아이폰15 시리즈 등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에서 아이폰15 프로·프로맥스에 탑재된 'A17 프로' 칩을 공개 ※A17 프로에는 190억 개 트랜지스터를 내장(전작인 A16 바이오닉은 160억 개 탑재)했으며, 전작 대비 GPU 기능 약 20% 개선을 통한 게임 성능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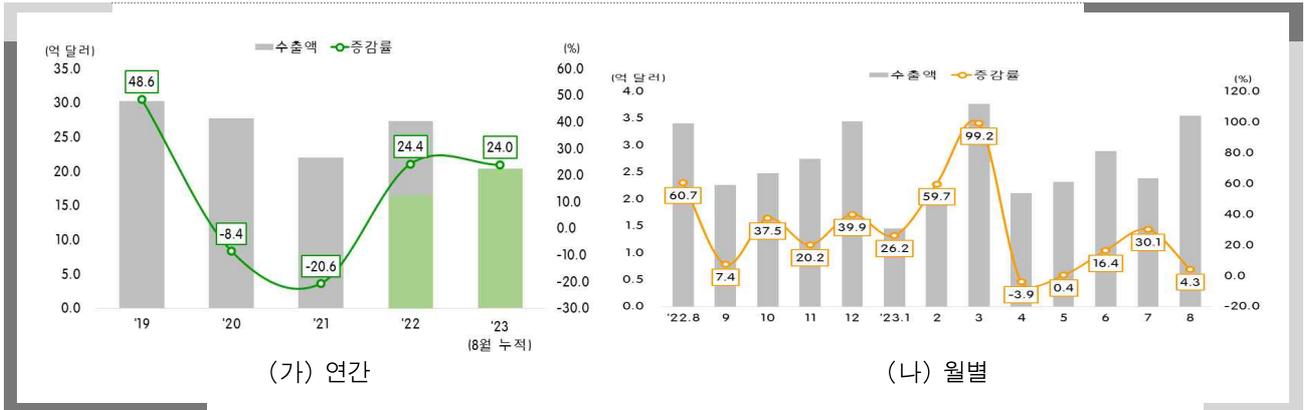
□ (수출 동향) XR·자율주행 등 수요처 확대 등으로 AP 수출은 오름세 지속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산업 부진 등으로 AP 수출은 주춤했으나, XR·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 성장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생 등으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연간) '19년(30억 3,537만 달러, 48.6%↑)은 '15년(37억 1,179만 달러, △2.5%) 이후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서며 2년 연속 성장을 달성
 - '20년(27억 7,939만 달러, △8.4%)은 코로나19발 경기 위축에 따른 전방 수요 둔화 등으로 하락 전환 후 '21년(22억 550만 달러, △20.6%)까지 내림세를 이어가며 낙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을 기록
 - 다만 '22년(27억 4,273만 달러, 24.4%↑) 반등 후 '23년(8월 누적, 20억 4,677만 달러, 24.0%↑) 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는 등 증가세 지속
 - (월별) '22.3월(1억 8,915만 달러, 6.6%↑) 상승 전환 후 13개월 연속 오름세 기록. 특히 '23.3월(3억 7,681만 달러, 99.2%↑)은 4억 달러에 육박하는 호조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 달성
 - '23.4월(2억 1,063만 달러, △3.9%) 소폭 반락하며 주춤했으나, 5월(2억 3,158만 달러, 0.4%↑)



반등 후 8월(3억 5,483만 달러, 4.3%↑)까지 상승세 지속

그림 2-9 | 연간 및 월별 AP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4 | AP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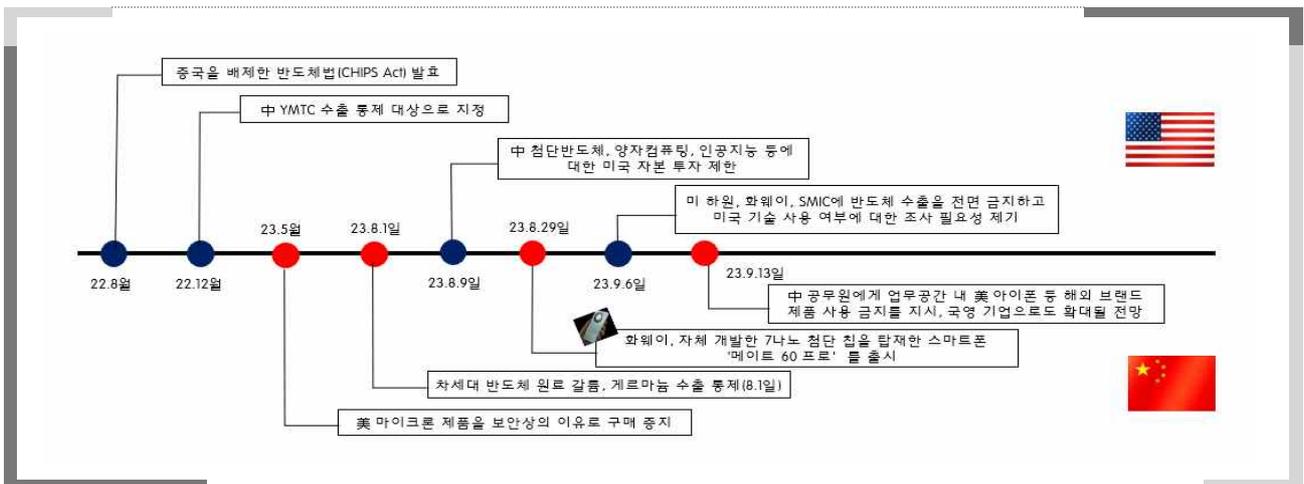
구분	'22.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AP	340.2	226.0	247.6	274.3	343.9	144.6	201.3	376.8	210.6	231.6	288.7	238.3	354.8
	(60.7)	(7.4)	(37.5)	(20.2)	(39.9)	(26.2)	(59.7)	(99.2)	(△3.9)	(0.4)	(16.4)	(30.1)	(4.3)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美的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中 화웨이가 7nm 프로세서가 내장된 신제품을 깜짝 출시해 주목**
 - (반도체) 中 7nm 첨단 공정 기술 개발 성공을 과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제재 효용성에 대해 논란 제기
 -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처음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 中이 자체 개발한 7nm 공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기린9000S)는 화웨이의 신제품 ‘메이트 60 프로(8.29일 출시)’에 탑재 출시
 - ※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생산 과정을 도맡아 진행
 - 이에 중국 고립화가 오히려 반도체 기술 자립을 촉진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美 하원은 SMIC의 미국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촉구와 對중 반도체 기술 수출 전면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장
 - 중국 내 국내 업체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연장 기한(’23.10월)이 도래하는 만큼 상황 예의주시 필요
 - ※ 한편 화웨이의 신제품에서 SK하이닉스(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의 메모리 반도체가 발견돼 제재(美 반도체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 시 美 정부의 허가가 필요)에 위반되는 거래인지 중국의 우회 수입인지 경위를 파악 중인 상황
 -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수율이 40~50%에 그치고 미국의 제재로 EUV(극자외선)가 아닌 한 단계 아래 장비인 DUV(심자외선)를 이용해 단가도 지나치게 비싸며 생산성도 낮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삼성전자 TSMC는 ’18~’19년 7nm 공정에 진입)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평가

그림 2-10 | 미·중 갈등 일지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7) '22.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에는 1년 간 적용 유예('23.10.11일 만료)를 허가. 韓 업계·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한차례 더 유예 조치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중국의 7nm 반도체 공개, 화웨이 신제품 내 SK하이닉스 칩 발견 등으로 대중 수출규제가 강화될 소지가 있어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스마트폰) 中 정부는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애플 제품 대신 자국 반도체 수요 확대를 위한 화웨이 신제품 구매를 독려
 - 중국은 애플에 빼앗긴 소비자들을 되찾기 위해 공무원 등의 아이폰 사용 제한 조치, 애국소비 심리 자극 등을 진행하며 애플 → 화웨이 신제품으로의 수요 이동을 도모
 - 이에 따라 ‘메이트60 프로’는 사전 주문 시작부터 대기 행렬이 지속되었고 출시(9.3일)와 동시에 품절을 기록하는 등 판매 대홍행을 기록. 또한 화웨이는 예상치 못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출하량도 당초 계획보다 20% 상향할 것이라 밝히며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
 - ※ 지난 '23.2분기 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5위(IDC) 수준이었으나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 9월 둘째 주(4~10일)엔 2위(17%)를 차지하며 급부상, 1위인 아너와는 0.2%p 차에 불과(연합뉴스, 9.20일)
 - 한편 애플(전체 매출의 19%가 중국)은 9.12일 ‘아이폰15’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中 애국소비 열풍, 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 등으로 매출 급감이 우려됐으나 걱정과 달리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15 프로·프로맥스의 사전 판매 결과가 매진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

□ 미국은 인도·중동·EU·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 행보를 지속

- 美,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 美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9.9~9.10일)에 참석해 중국의 일대일로⁸⁾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중동-유럽을 철도·항만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제시
 - ※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은 미국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등이 참가하였으며 이스라엘·요르단 등도 가세할 전망
 - IMEC는 인도-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동쪽 회랑, 아라비아만-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참여국들은 신설될 철도를 따라 전기, 디지털 케이블, 수소 파이프, 통신망 등의 초대형 인프라 등도 부설할 방침. 대륙 간 연결성 강화 및 경제 발전 등이 기대
 - ※ 참여국들은 향후 60일간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24년부터 투자자금 조달 및 인프라 건설에 본격 착수할 방침
- G20 정상회의 종료 후 미국-베트남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며 첨단기술안보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합의, 美 중국 견제망을 강화(9.11일)
 - 미국과 베트남은 10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13년 체결)’ 관계에서 두 단계 상향(‘전략적 동반자’를 패스)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 또한 양국은 스마트폰,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에 사용 되는 희토류(중국 다음으로 희토류가 많은 국가)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
 - ※ 같은 공산 국가로 친중 성격이 강했던 베트남이 최근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8)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 한편 9.10일 G20 정상회의서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탈퇴 의사를 전달

상황 속 미국과의 관계 격상으로 눈길. 이로써 베트남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러시아('06년), 중국('08년), 인도('12년), 한국('22년)에 이어 미국('23년)까지 5개국으로 구성

- 美는 양국의 외교 관계 최고 격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中에 대한 견제 기반을 더욱 강화

그림 2-11 |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IMEC 및 국가별 희토류 매장량' 22년 기준)



자료 : 중앙일보, 9.11일 재인용 / Statista, 2023.1.

□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中 대응책 마련에 집중

- **(EU·일)**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
 - (EU) 중국산 전기차가 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 지적하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해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예고(9.13일)
 - ※ EU 시장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년) 4.1% → ('23년, 8월 누적) 11.7%까지 확대돼, EU 정부가 과거 태양광 패널(중국 업체의 저가공세로 EU 태양광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역내 전기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동아일보, 9.15일, 원소스 EU-EVs)
 - 中 전기차 업체의 원자재 및 배터리 가격, 대출 특혜, 저렴한 부지 제공 등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 등을 최장 13개월에 걸쳐 검증할 계획이며, 관세 비율은 현재 EU가 역외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10%)가 아닌 미국과 비슷한 수준(중국산 자동차에 27.5%의 관세 부과)까지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관측
 - (일본) 코발트·흑연·리튬 등 중요 광물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와 이차전지 생산 및 광물 채굴 등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을 협력키로 합의(9.15일)
- **(중국)** 전기차 관련 미국·EU·일본 등의 압박에 반발하며 자국산 부품 사용 확대를 지시
 - 중국은 美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EU의 보조금 조사 돌입, 日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을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 반박하며 보복을 예고
 - 9.17일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중국산 전기차용 전자부품' 채택율을 확대할 것을 구두로 주문하며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치 못하는 업체에 벌칙도 부과할 것이라 예고



- ※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문서 대신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해석
- 또한 이차전지 제조기술 등도 유출되지 않도록 CATL 등에 해외 공장 건설 시 대외투자 지분의 100%를 확보하라 지시하며 전기차 관련 공급망에 대한 자생력 키우기에 집중. 미국·EU·일본 등의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 공격에도 선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관측
 - ※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美의 테슬라·퀄컴 등이, 엔진 등을 제어하는 칩·센서는 유럽의 인피니언·NXP 등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등은 독일의 보쉬·AF, 일본의 덴소 등이 장악
- 한편 중국의 전기차 부품 국산화 추진이 본격 시행될 경우, 전장용 사업 확대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전방위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
 - 국내 주요 업체인 삼성·LG는 각 계열사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모듈, MLCC,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에 투자를 확대하며 전장용 사업을 강화
 - ※ 삼성전자는 전장용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PC 시장을 뛰어넘는 3대 응용처로 부상할 것이라 판단해 매년 전장용 AP 및 파운드리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입. 이외에도 삼성전기는 전기차용 MLCC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전장용 사업 확대에 매진
 - 양사의 주력 전장용 시장은 북미·유럽이나 '23.8월 삼성전자(다바이스솔루션 부문)가 중국 차량용 시스템 온칩(SoC) 제조사 세미드라이브와 협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중국 전장용 시장으로도 저변을 확대
 -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용 부품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식 등의 대안책을 고심중인 것으로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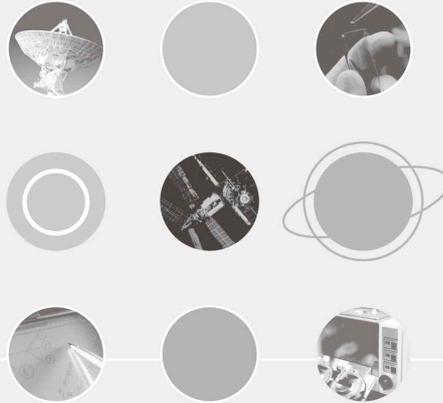
□ EU,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CRMA 법안을 채택

- 유럽의회는 역내 원자재 가공 목표 등을 상향한 유럽관 IRA ‘핵심원자재법(CRMA)’을 가결
 - EU는 '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핵심원자재법’을 가결·승인(9.14일)하며 최종안 마련에 착수
 - '23.3월 발표된 초안과 달리 전략적 원자재 리스트(리튬·코발트 등 16가지 원자재)에 알루미늄이 추가된 점, 역내 가공 목표도 40→50%로 한차례 상향 조정된 점 등에 눈길
 - ※ 초안에 따르면 '30년까지 EU는 핵심 원자재의 연간 소비량 중 최소 10%는 역내 광산에서 직접 채굴하고, 사용되는 물자의 40%도 역내 가공, 재활용 또한 15%가 역내에서 이뤄지도록 목표를 제시
 - 해당 법안은 EU 입법 절차상 마지막 단계인 3자 협상(집행위, 이사회, 의회)을 통해 세부 내용 조율 등 마무리 작업 후 '23.12월 내 최종안으로 확정될 방침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유럽도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도입하는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혈안. 급변하는 공급망 판도 속 우리 업체들의 유연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474,174	1.3	100.0	418,738	-9.3	100.0	2,438,689	-12.4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77,696	-0.8	67.2	264,317	-15.9	63.1	1,523,463	-19.9	62.5
- 전자부품	2,264,882	-2.4	41.4	150,085	-23.3	35.8	830,409	-29.2	34.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630	0.1	3.4	10,648	-33.4	2.5	63,988	-37.2	2.6
- 통신 및 방송기기	360,569	-2.4	6.6	31,270	5.7	7.5	193,532	1.2	7.9
- 영상 및 음향기기	86,049	1.0	1.6	6,192	-13.7	1.5	38,607	-16.2	1.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82,565	4.4	14.3	66,123	0.3	15.8	396,927	1.4	16.3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79,322	3.5	16.1	76,489	5.3	18.3	457,944	5.5	18.8
- 통신서비스	377,332	0.6	6.9	32,285	2.8	7.7	191,040	1.6	7.8
· 유선통신서비스	102,469	0.2	1.9	8,773	4.2	2.1	52,463	3.6	2.2
· 무선통신서비스	252,783	0.5	4.6	21,408	1.2	5.1	127,119	0.7	5.2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080	3.0	0.4	2,104	14.9	0.5	11,457	2.5	0.5
- 방송서비스	227,128	7.1	4.1	18,799	0.7	4.5	111,463	0.5	4.6
· 지상파방송서비스	42,703	6.9	0.8	3,267	-6.1	0.8	18,752	-7.4	0.8
· 유료방송서비스	73,038	4.2	1.3	6,251	2.3	1.5	38,475	6.2	1.6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110,946	9.3	2.0	9,237	2.1	2.2	53,987	-0.3	2.2
· 기타방송서비스	441	-8.0	0.0	44	21.7	0.0	248	12.0	0.0
- 정보서비스	274,862	4.9	5.0	25,405	12.8	6.1	155,442	15.2	6.4
· 정보인프라서비스	45,770	4.8	0.8	4,055	8.0	1.0	23,914	5.5	1.0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9,092	4.9	4.2	21,350	13.7	5.1	131,528	17.2	5.4
○ 소프트웨어	917,156	8.8	16.8	77,933	4.2	18.6	457,282	2.5	18.8
- 패키지 소프트웨어	199,522	15.9	3.6	16,938	3.2	4.0	102,115	11.2	4.2
- 게임 소프트웨어	192,832	7.0	3.5	15,870	0.3	3.8	93,066	1.6	3.8
- IT 서비스	524,802	6.9	9.6	45,125	6.0	10.8	262,100	-0.2	10.7

자료 : KEA, KAIT, 2023.9.

2 2023년 8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4,093.5	1,155.7	-28.2	4,333.2	907.1	-10.3	-239.7	248.6
1/4분기	1,513.0	416.4	-32.5	1,739.8	351.0	-4.1	-226.8	65.3
2/4분기	1,558.3	432.7	-28.8	1,596.4	331.1	-12.4	-38.1	101.6
상반기	3,071.3	849.1	-30.7	3,336.2	682.2	-8.3	-264.9	167.0
1월	463.5	130.7	-33.4	589.6	122.4	-0.8	-126.1	8.3
2월	500.1	128.0	-32.1	553.5	110.2	-3.3	-53.4	17.9
3월	549.4	157.7	-32.2	596.7	118.5	-7.9	-47.3	39.2
4월	494.7	127.7	-35.9	522.2	104.7	-13.8	-27.5	23.0
5월	521.2	144.5	-28.5	543.3	112.0	-11.2	-22.1	32.5
6월	542.4	160.6	-22.1	530.9	114.5	-12.3	11.5	46.1
7월	503.5	146.1	-24.3	487.0	114.2	-13.7	16.5	31.9
8월	518.7	160.5	-16.7	510.0	110.7	-18.1	8.7	49.8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6,050	-16.7	100.0	115,571	-28.2	100.0
○ 전자부품	166,917	1.1	71.6	11,685	-16.6	72.8	79,785	-31.6	69.0
- 반도체	130,865	1.7	56.1	8,642	-21.1	53.8	60,106	-34.6	52.0
· 메모리반도체	73,753	-10.5	31.6	4,247	-26.1	26.5	29,215	-46.3	25.3
· 시스템반도체	50,670	27.5	21.7	3,967	-14.9	24.7	27,193	-18.3	23.5
- 디스플레이	24,413	-1.0	10.5	2,131	1.8	13.3	12,834	-23.6	11.1
- 전자관	6	20.3	0.0	1	293.3	0.0	7	123.4	0.0
- 수동부품	2,148	-8.4	0.9	201	25.9	1.3	1,582	9.1	1.4
PCB	5,952	2.8	2.6	412	-21.6	2.6	3,061	-26.7	2.6
- 접속부품	3,312	-0.8	1.4	284	9.8	1.8	2,070	-8.6	1.8
- 기타전자부품	148	-7.6	0.1	10	-7.6	0.1	86	-14.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664	-47.4	4.1	5,953	-52.7	5.2
- 컴퓨터	1,019	-55.6	0.4	85	17.7	0.5	665	-1.9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579	-51.3	3.6	5,289	-55.6	4.6
·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23	26.4	0.8	976	11.5	0.8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10.8	0.2	31	-25.6	0.2	256	-18.7	0.2
·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358	-63.4	2.2	3,479	-65.2	3.0
○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208	-11.4	7.5	9,146	-18.7	7.9
- 통신기기	17,573	8.7	7.5	1,199	-11.8	7.5	9,091	-18.8	7.9
·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1	-15.8	0.5	676	-15.5	0.6
·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1,118	-11.5	7.0	8,415	-19.1	7.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994	-12.2	6.2	7,459	-20.2	6.5
※ 통신장비	2,901	33.2	1.2	205	-9.5	1.3	1,632	-12.1	1.4
- 방송용 장비	74	-87.0	0.0	9	120.7	0.1	55	13.4	0.0
○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53	-7.6	1.0	1,202	-19.4	1.0
- 영상기기	1,250	-18.1	0.5	93	-3.7	0.6	668	-25.7	0.6
· TV	735	-31.0	0.3	51	-5.6	0.3	354	-36.8	0.3
LCD TV	48	42.8	0.0	0	-84.7	0.0	9	-75.0	0.0
TV 부분품	664	-34.5	0.3	47	-3.0	0.3	322	-36.8	0.3
· 셋탑박스	18	-17.8	0.0	2	33.6	0.0	13	-3.9	0.0
- 음향기기	840	4.8	0.4	55	-15.1	0.3	501	-11.3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6	14.4	0.0	32	19.1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340	-5.2	14.6	19,485	2.5	16.9
-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454	10.4	2.8	3,867	-8.6	3.3
- 사무용기기	343	-19.7	0.1	27	-30.2	0.2	224	-0.4	0.2
- 의료용기기	2,790	8.8	1.2	240	15.2	1.5	1,864	2.8	1.6
- 전기 장비	13,578	13.9	5.8	1,019	-16.4	6.4	8,888	-0.5	7.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753	-20.7	4.7	6,649	0.2	5.8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1,073	-18.1	100.0	90,713	-10.3	100.0
○ 전자부품	89,481	19.9	58.7	6,478	-18.7	58.5	49,918	-15.8	55.0
- 반도체	75,146	21.8	49.3	5,277	-21.5	47.7	41,422	-15.9	45.7
· 메모리반도체	25,094	16.3	16.5	1,378	-38.8	12.4	11,936	-32.5	13.2
· 시스템반도체	41,292	31.2	27.1	3,269	-12.5	29.5	24,301	-5.3	26.8
- 디스플레이	4,970	28.5	3.3	412	-0.2	3.7	2,899	-19.3	3.2
- 전자관	75	17.1	0.0	7	-2.8	0.1	46	3.3	0.1
- 수동부품	2,563	-8.5	1.7	215	-1.1	1.9	1,634	-8.6	1.8
PCB	3,561	14.8	2.3	289	-12.1	2.6	1,856	-22.5	2.0
- 접속부품	2,375	-5.7	1.6	200	-2.9	1.8	1,570	-3.8	1.7
- 기타전자부품	697	60.0	0.5	74	0.0	0.7	443	-4.1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006	-23.9	9.1	10,006	-16.9	11.0
- 컴퓨터	10,112	-1.2	6.6	575	-23.4	5.2	5,507	-24.1	6.1
- 주변기기	7,341	12.7	4.8	432	-24.4	3.9	4,499	-5.9	5.0
·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102	-5.2	0.9	773	-20.4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941	-2.2	0.6	60	-26.7	0.5	593	-9.0	0.7
·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186	-35.8	1.7	2,424	5.7	2.7
○ 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020	-32.8	9.2	8,718	-11.8	9.6
- 통신기기	15,010	-5.1	9.8	1,001	-33.6	9.0	8,595	-12.1	9.5
·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78	6.8	1.6	1,366	10.8	1.5
·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823	-38.6	7.4	7,229	-15.4	8.0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561	-43.5	5.1	4,988	-16.5	5.5
※ 통신장비	5,730	1.6	3.8	440	-14.5	4.0	3,607	-5.1	4.0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19	70.9	0.2	122	10.4	0.1
○ 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55	-15.1	2.3	2,151	-12.4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53	-15.9	1.4	1,174	-21.9	1.3
· TV	1,444	-23.6	0.9	92	-22.5	0.8	739	-29.4	0.8
LCD TV	779	-16.2	0.5	52	-16.5	0.5	427	-22.4	0.5
TV 부분품	377	-34.4	0.2	20	-32.1	0.2	149	-48.0	0.2
· 셋탑박스	192	-10.4	0.1	26	13.1	0.2	146	-2.6	0.2
- 음향기기	1,174	6.9	0.8	94	-6.0	0.8	787	3.7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9	-55.0	0.1	191	-1.7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314	-3.7	20.9	19,920	13.6	22.0
-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358	-7.1	3.2	3,003	-9.5	3.3
- 사무용기기	37	14.8	0.0	3	5.7	0.0	26	8.1	0.0
- 의료용기기	2,379	4.1	1.6	200	-6.3	1.8	1,662	5.6	1.8
- 전기 장비	11,088	34.3	7.3	1,043	2.2	9.4	9,523	37.3	10.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742	11.1	6.7	6,687	62.4	7.4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6,050	11,073	4,977	24,858
○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11,685	6,478	5,207	29,867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8,642	5,277	3,365	18,684
· 메모리반도체	73,753	25,094	48,660	4,247	1,378	2,869	17,280
· 시스템반도체	50,670	41,292	9,378	3,967	3,269	698	2,892
- 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2,131	412	1,719	9,935
- 전자관	6	75	-69	1	7	-5	-39
- 수동부품	2,148	2,563	-416	201	215	-14	-52
PCB	5,952	3,561	2,392	412	289	123	1,205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84	200	84	500
- 기타전자부품	148	697	-549	10	74	-64	-357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664	1,006	-342	-4,053
- 컴퓨터	1,019	10,112	-9,093	85	575	-490	-4,842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579	432	147	790
·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23	102	21	203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941	-482	31	60	-29	-337
·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358	186	172	1,055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208	1,020	188	428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199	1,001	198	496
·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1	178	-97	-690
·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1,118	823	295	1,186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994	561	433	2,470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205	440	-235	-1,975
- 방송용 장비	74	172	-98	9	19	-10	-68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53	255	-102	-950
- 영상기기	1,250	2,088	-838	93	153	-61	-506
· TV	735	1,444	-709	51	92	-40	-385
LCD TV	48	779	-730	0	52	-52	-418
TV 부분품	664	377	287	47	20	28	174
· 셋탑박스	18	192	-174	2	26	-24	-133
- 음향기기	840	1,174	-334	55	94	-38	-286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6	9	-3	-158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340	2,314	26	-435
-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454	358	96	864
- 사무용기기	343	37	305	27	3	24	198
-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40	200	40	202
-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019	1,043	-24	-63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753	742	11	-38

자료 : IITP, KTSPI

표 3-6 |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6,050	-16.7	100.0	115,571	-28.2	100.0
○ 아시아	180,075	2.0	77.2	12,746	-15.4	79.4	88,254	-28.8	76.4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6,551	-20.6	40.8	47,142	-33.7	40.8
- 일 본	4,429	2.7	1.9	379	13.0	2.4	2,835	-5.4	2.5
- ASEAN	53,710	9.5	23.0	4,330	-3.9	27.0	28,561	-21.5	24.7
· 싱가포르	6,924	45.0	3.0	604	-9.3	3.8	3,490	-26.9	3.0
· 인 니	1,122	25.7	0.5	84	-16.2	0.5	732	-2.5	0.6
· 말 련	2,944	17.4	1.3	224	-13.9	1.4	1,725	-12.6	1.5
· 태 국	1,530	13.0	0.7	114	3.5	0.7	984	-5.5	0.9
· 베트남	36,636	4.3	15.7	3,047	1.7	19.0	19,802	-19.4	17.1
- 대 만	14,755	16.4	6.3	1,046	-24.5	6.5	6,791	-34.4	5.9
- 인 도	4,533	63.0	1.9	414	-26.0	2.6	2,703	-9.4	2.3
○ 북미	30,226	5.0	13.0	1,713	-29.2	10.7	14,437	-30.8	12.5
- 미 국	29,141	4.3	12.5	1,647	-29.5	10.3	13,939	-30.7	12.1
- 캐나다	955	33.7	0.4	51	-28.3	0.3	390	-42.5	0.3
○ 유럽	15,893	4.0	6.8	988	-14.9	6.2	8,551	-23.7	7.4
- 유럽연합	13,732	7.5	5.9	836	-20.0	5.2	7,172	-26.0	6.2
· 독 일	3,516	-0.2	1.5	167	-46.2	1.0	1,736	-29.3	1.5
· 프랑스	901	6.7	0.4	60	16.0	0.4	574	-6.6	0.5
· 이탈리아	596	27.0	0.3	21	-59.2	0.1	268	-37.8	0.2
- 영 국	1,062	1.7	0.5	48	18.5	0.3	556	-28.3	0.5
- 러시아	482	-39.0	0.2	35	11.2	0.2	280	-14.5	0.2
○ 중동	1,680	5.4	0.7	125	-8.0	0.8	1,143	2.8	1.0
- 사우디	327	43.2	0.1	23	-9.8	0.1	247	23.9	0.2
- UAE	522	5.8	0.2	42	4.7	0.3	350	7.0	0.3
○ 중남미	4,382	1.8	1.9	389	-7.1	2.4	2,591	-17.5	2.2
- 브라질	1,439	-1.3	0.6	114	-4.4	0.7	843	-16.6	0.7
- 멕시코	2,670	6.4	1.1	250	-10.8	1.6	1,580	-18.4	1.4
- 칠 레	68	-43.0	0.0	7	34.6	0.0	46	-8.0	0.0
○ 대양주	685	-5.0	0.3	59	13.7	0.4	388	-20.9	0.3
- 호 주	599	-3.0	0.3	39	-15.2	0.2	325	-24.7	0.3
○ 아프리카	280	-9.4	0.1	28	15.9	0.2	200	10.5	0.2
※ 브릭스	85,990	4.8	36.9	5,413	-26.5	33.7	39,981	-33.0	34.6

자료 : IITP, KTSPI



표 3-7 |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1,073	-18.1	100.0	90,713	-10.3	100.0
○ 아시아	126,723	12.2	83.1	9,577	-16.9	86.5	76,014	-10.7	83.8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3,789	-32.1	34.2	36,990	-15.4	40.8
- 일 본	13,590	13.5	8.9	1,031	-6.8	9.3	8,093	-3.9	8.9
- ASEAN	25,741	10.3	16.9	2,141	-20.5	19.3	16,861	-4.9	18.6
· 싱가포르	4,701	15.3	3.1	339	-36.6	3.1	2,953	-3.5	3.3
· 인 니	783	-15.4	0.5	63	-14.4	0.6	492	-9.6	0.5
· 말 련	4,055	12.6	2.7	341	-7.0	3.1	2,708	2.6	3.0
· 태 국	2,115	5.4	1.4	187	2.3	1.7	1,385	-5.3	1.5
· 베트남	12,225	9.4	8.0	1,067	-22.5	9.6	8,066	-8.8	8.9
- 대 만	22,536	26.8	14.8	1,733	-18.8	15.6	13,112	-13.5	14.5
- 인 도	116	10.1	0.1	7	-30.7	0.1	75	-5.1	0.1
○ 북미	9,000	-1.0	5.9	719	-5.1	6.5	5,614	-6.6	6.2
- 미 국	8,563	-1.8	5.6	691	-4.0	6.2	5,351	-6.6	5.9
- 캐나다	307	24.7	0.2	20	-24.5	0.2	196	3.2	0.2
○ 유럽	8,719	10.0	5.7	649	-14.7	5.9	5,880	2.9	6.5
- 유럽연합	7,614	10.7	5.0	575	-13.4	5.2	5,145	2.6	5.7
· 독 일	3,523	7.3	2.3	249	-22.9	2.2	2,216	-7.8	2.4
· 프랑스	1,204	29.5	0.8	89	-19.5	0.8	739	-3.2	0.8
· 이탈리아	377	6.0	0.2	27	-34.5	0.2	344	45.1	0.4
- 영 국	572	1.8	0.4	41	-22.4	0.4	418	11.8	0.5
- 러시아	18	-28.1	0.0	1	-30.3	0.0	7	-39.1	0.0
○ 중동	666	1.7	0.4	36	-22.5	0.3	536	12.0	0.6
- 사우디	1	-53.1	0.0	0	67.6	0.0	1	94.5	0.0
- UAE	9	-80.2	0.0	1	-30.6	0.0	6	-3.0	0.0
○ 중남미	925	-6.0	0.6	84	4.6	0.8	683	9.6	0.8
- 브라질	7	-54.4	0.0	1	114.6	0.0	8	42.5	0.0
- 멕시코	913	-5.4	0.6	83	4.1	0.8	672	9.2	0.7
- 칠 레	2	88.1	0.0	0	-43.8	0.0	2	26.9	0.0
○ 대양주	119	4.2	0.1	6	-77.1	0.1	66	-21.5	0.1
- 호 주	98	23.6	0.1	4	-83.2	0.0	46	-34.1	0.1
○ 아프리카	13	-27.5	0.0	0	-62.2	0.0	6	-43.6	0.0
※ 브릭스	63,474	8.3	41.6	3,766	-30.8	34.0	36,333	-15.3	40.1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수출	수입	수지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6,050	11,073	4,977	24,858
○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12,746	9,577	3,169	12,240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6,551	3,789	2,762	10,153
- 일 본	4,429	13,590	-9,161	379	1,031	-652	-5,257
- ASEAN	53,710	25,741	27,968	4,330	2,141	2,188	11,700
· 싱가포르	6,924	4,701	2,223	604	339	265	537
· 인 니	1,122	783	340	84	63	21	240
· 말 련	2,944	4,055	-1,110	224	341	-118	-983
· 태 국	1,530	2,115	-585	114	187	-74	-401
· 베트남	36,636	12,225	24,411	3,047	1,067	1,980	11,735
- 대 만	14,755	22,536	-7,781	1,046	1,733	-686	-6,321
- 인 도	4,533	116	4,418	414	7	407	2,628
○ 북미	30,226	9,000	21,226	1,713	719	993	8,823
- 미 국	29,141	8,563	20,578	1,647	691	956	8,587
- 캐나다	955	307	648	51	20	31	194
○ 유럽	15,893	8,719	7,174	988	649	339	2,671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836	575	261	2,027
· 독 일	3,516	3,523	-7	167	249	-82	-481
· 프랑스	901	1,204	-303	60	89	-29	-165
· 이탈리아	596	377	219	21	27	-5	-76
- 영 국	1,062	572	489	48	41	7	139
- 러시아	482	18	464	35	1	34	273
○ 중동	1,680	666	1,014	125	36	89	608
- 사우디	327	1	326	23	0	23	246
- UAE	522	9	513	42	1	42	344
○ 중남미	4,382	925	3,457	389	84	305	1,907
- 브라질	1,439	7	1,431	114	1	113	835
- 멕시코	2,670	913	1,757	250	83	167	908
- 칠 레	68	2	66	7	0	6	45
○ 대양주	685	119	566	59	6	53	322
- 호 주	599	98	501	39	4	35	278
○ 아프리카	280	13	267	28	0	27	194
※ 브릭스	85,990	63,474	22,516	5,413	3,766	1,647	3,649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87	0.2	100.0	928	-16.0	100.0	6,554	-8.0	100.0
○ 전자부품	3,511	1.2	27.9	243	-20.2	26.2	1,794	-12.9	27.4
- 반도체	2,636	7.0	20.9	184	-19.7	19.8	1,357	-12.2	20.7
- 디스플레이 패널	151	-54.0	1.2	11	-11.6	1.2	88	-3.7	1.3
- 전자관	1	-4.9	0.0	0	27.7	0.0	1	26.9	0.0
- 수동부품	202	16.8	1.6	8	-41.2	0.9	79	-30.2	1.2
- PCB	199	-4.5	1.6	15	-15.6	1.6	100	-17.7	1.5
- 접속부품	269	4.4	2.1	21	-18.7	2.2	143	-8.5	2.2
- 기타 전자부품	52	44.0	0.4	4	-29.6	0.4	27	-14.2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37	4.1	20.2	178	-24.7	19.2	1,190	-21.7	18.2
- 컴퓨터	1,566	-6.8	12.4	103	-31.7	11.1	699	-25.6	10.7
- 주변기기	971	28.5	7.7	75	-12.4	8.1	491	-15.5	7.5
· 디스플레이장치	217	0.5	1.7	15	-30.7	1.6	96	-33.9	1.5
· 프린터(부품포함)	150	5.9	1.2	11	-22.8	1.2	79	-4.7	1.2
· 보조기억장치	138	-25.2	1.1	9	-13.7	1.0	65	-17.5	1.0
· 저장 매체	291	749.1	2.3	27	6.7	2.9	167	-4.1	2.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6	-2.4	1.4	14	-8.0	1.5	85	-16.1	1.3
○ 통신 및 방송기기	2,441	-11.3	19.4	161	-8.9	17.4	1,154	-11.7	17.6
- 통신기기	2,431	-6.9	19.3	160	-8.9	17.3	1,148	-11.8	17.5
· 유선통신기기	548	1.9	4.4	35	-22.9	3.8	254	-10.4	3.9
· 무선통신기기	1,501	-27.6	11.9	98	1.9	10.6	710	-12.0	10.8
- 방송국용 기기	107	-19.5	0.8	9	-4.4	1.0	58	-2.6	0.9
○ 영상 및 음향기기	879	5.1	7.0	78	-1.7	8.4	494	6.9	7.5
- 영상기기	326	-19.0	2.6	28	-6.3	3.0	182	-2.6	2.8
- 음향기기	272	1.2	2.2	19	-20.4	2.0	136	-6.4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84	12.0	1.5	22	34.6	2.4	123	63.7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219	5.0	25.6	268	-12.8	28.9	1,923	8.5	29.3
- 가정용 기기	1,094	-7.4	8.7	89	-14.8	9.6	641	-2.7	9.8
- 사무용 기기	59	20.4	0.5	4	-21.7	0.5	30	-9.0	0.5
- 의료용 기기	157	-13.6	1.3	13	-12.1	1.4	93	11.0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9	-7.3	2.0	23	-11.9	2.4	164	28.8	2.5
- 전기 장비	1,644	18.8	13.1	138	-11.4	14.8	984	14.1	15.0
· 건전지 및 축전지	636	75.8	5.1	57	0.9	6.2	429	38.4	6.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7,553	-8.0	100.0	527	-15.7	100.0	3,553	-18.9	100.0
○ 전자부품	5,656	-3.4	74.9	379	-17.8	72.0	2,578	-22.2	72.6
- 반도체	4,762	-4.3	63.0	324	-17.9	61.4	2,177	-22.3	61.3
- 디스플레이 패널	405	28.7	5.4	24	-12.5	4.6	185	-15.8	5.2
- 전자관	2	-18.1	0.0	0	9.2	0.0	1	-2.4	0.0
- 수동부품	190	-14.9	2.5	11	-18.5	2.2	80	-30.0	2.2
- PCB	107	-12.7	1.4	7	-28.1	1.3	45	-29.5	1.3
- 접속부품	186	-12.4	2.5	13	-18.3	2.4	89	-20.2	2.5
- 기타 전자부품	4	-4.2	0.1	0	-22.7	0.1	2	-22.3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512	-3.5	6.8	47	3.9	8.9	257	-17.5	7.2
- 컴퓨터	44	1.7	0.6	7	62.9	1.3	37	47.9	1.0
- 주변기기	469	-3.9	6.2	40	-2.0	7.6	220	-23.2	6.2
· 디스플레이장치	4	-23.6	0.1	0	-3.2	0.1	2	1.6	0.1
· 프린터(부품포함)	54	-14.2	0.7	4	-11.6	0.7	29	-4.2	0.8
· 보조기억장치	230	-21.4	3.0	15	-21.9	2.9	85	-41.2	2.4
· 저장 매체	109	129.1	1.4	7	-27.2	1.3	49	-25.1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9.7	1.0	14	88.8	2.6	54	25.2	1.5
○ 통신 및 방송기기	277	-56.4	3.7	20	-20.9	3.7	128	-14.7	3.6
- 통신기기	276	-52.1	3.7	20	-20.9	3.7	127	-14.9	3.6
· 유선통신기기	102	9.1	1.3	9	-7.7	1.6	51	-1.4	1.4
· 무선통신기기	60	-87.5	0.8	5	-34.4	0.9	35	3.3	1.0
- 방송국용 기기	25	-9.8	0.3	2	0.1	0.4	14	-0.4	0.4
○ 영상 및 음향기기	259	11.4	3.4	15	-6.6	2.8	121	-5.4	3.4
- 영상기기	190	1.6	2.5	10	-4.6	1.9	86	-2.3	2.4
- 음향기기	39	1.6	0.5	2	-27.1	0.4	17	-28.0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7	-12.4	0.1	1	34.8	0.1	5	52.1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49	-11.4	11.2	67	-14.5	12.6	468	-1.6	13.2
- 가정용 기기	194	-11.0	2.6	14	-16.5	2.6	100	-13.9	2.8
- 사무용 기기	4	-14.2	0.1	0	-22.5	0.0	1	-33.4	0.0
- 의료용 기기	116	-14.6	1.5	10	6.9	2.0	74	19.2	2.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4	-20.3	4.2	25	-19.7	4.8	183	7.3	5.1
- 전기 장비	187	-9.0	2.5	14	-18.6	2.6	88	-18.2	2.5
· 건전지 및 축전지	62	-15.8	0.8	4	-22.6	0.7	26	-27.8	0.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3,020	6.1	100.0	244	-2.2	100.0	1,742	1.1	100.0
○ 전자부품	1,045	3.2	34.6	74	-16.2	30.1	533	-12.4	30.6
- 반도체	783	0.9	25.9	53	-21.1	21.6	378	-17.1	21.7
- 디스플레이 패널	34	-3.1	1.1	3	0.1	1.1	19	-9.6	1.1
- 전자관	4	2.7	0.1	0	36.5	0.1	2	31.6	0.1
- 수동부품	41	7.5	1.3	3	-10.2	1.2	23	-5.3	1.3
- PCB	13	9.8	0.4	1	-7.9	0.4	7	-12.2	0.4
- 접속부품	167	14.5	5.5	14	1.4	5.7	103	6.4	5.9
- 기타 전자부품	3	32.6	0.1	0	19.5	0.1	2	-1.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0	7.7	13.9	35	-4.1	14.1	244	4.8	14.0
- 컴퓨터	176	4.9	5.8	16	2.7	6.5	104	6.0	6.0
- 주변기기	244	9.9	8.1	19	-9.3	7.6	140	4.0	8.0
· 디스플레이장치	18	21.7	0.6	1	-17.3	0.5	9	-12.4	0.5
· 프린터(부품포함)	35	1.7	1.2	3	5.8	1.2	21	4.9	1.2
· 보조기억장치	55	7.3	1.8	4	-4.0	1.7	30	7.7	1.7
· 저장 매체	81	12.4	2.7	6	-25.3	2.4	39	-13.0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5	11.2	1.8	5	7.1	1.9	40	31.3	2.3
○ 통신 및 방송기기	394	1.5	13.0	37	13.4	15.0	248	12.3	14.2
- 통신기기	382	10.1	12.6	36	14.7	14.6	240	12.3	13.8
· 유선통신기기	196	15.7	6.5	21	23.6	8.6	136	28.7	7.8
· 무선통신기기	167	-6.1	5.5	13	4.6	5.4	92	-4.7	5.3
- 방송국용 기기	30	5.0	1.0	3	6.9	1.1	20	24.1	1.2
○ 영상 및 음향기기	104	21.2	3.4	9	16.1	3.7	63	9.2	3.6
- 영상기기	30	-7.4	1.0	2	-6.5	0.9	16	-13.5	0.9
- 음향기기	38	5.6	1.3	3	16.3	1.4	24	9.3	1.4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6.1	0.6	2	44.5	0.7	11	28.6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58	9.0	35.0	91	5.2	37.1	653	8.4	37.5
- 가정용 기기	170	0.3	5.6	14	3.5	5.8	101	3.2	5.8
- 사무용 기기	11	13.8	0.4	1	5.1	0.3	6	0.9	0.3
- 의료용 기기	301	8.2	10.0	27	10.7	11.1	195	14.3	1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0.2	9.8	24	-1.9	9.7	177	4.5	10.2
- 전기 장비	251	15.6	8.3	22	8.0	9.0	156	9.2	9.0
· 건전지 및 축전지	58	11.9	1.9	5	13.7	2.1	38	20.3	2.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986	10.5	100.0	539	-8.5	100.0	3,677	-7.4	100.0
○ 전자부품	1,247	12.4	17.9	105	2.1	19.6	696	-4.0	18.9
- 반도체	967	12.5	13.8	84	6.5	15.6	540	-4.2	14.7
- 디스플레이 패널	29	-18.4	0.4	2	-14.2	0.4	16	-3.4	0.4
- 전자관	3	-4.1	0.0	0	-14.7	0.0	1	-5.0	0.0
- 수동부품	50	17.9	0.7	4	-19.6	0.7	26	-16.7	0.7
- PCB	28	18.5	0.4	2	-14.6	0.4	14	-4.6	0.4
- 접속부품	162	16.5	2.3	13	-9.0	2.4	94	1.3	2.5
- 기타 전자부품	9	31.4	0.1	1	-17.6	0.1	4	-11.4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68	6.2	23.9	111	-28.2	20.6	758	-21.4	20.6
- 컴퓨터	1,015	3.3	14.5	74	-24.0	13.8	479	-17.8	13.0
- 주변기기	653	11.2	9.3	36	-35.6	6.7	279	-26.8	7.6
· 디스플레이장치	112	11.1	1.6	8	-27.2	1.4	47	-35.2	1.3
· 프린터(부품포함)	147	4.7	2.1	9	-23.0	1.7	69	-17.5	1.9
· 보조기억장치	111	6.3	1.6	5	-47.6	0.9	45	-28.7	1.2
· 저장 매체	183	12.8	2.6	9	-47.7	1.6	67	-38.3	1.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0	25.6	1.4	6	-25.4	1.1	50	-3.6	1.4
○ 통신 및 방송기기	1,343	6.2	19.2	94	-6.1	17.4	677	-7.5	18.4
- 통신기기	1,305	14.6	18.7	92	-5.6	17.0	660	-7.1	17.9
· 유선통신기기	536	20.9	7.7	41	-5.3	7.6	297	5.6	8.1
· 무선통신기기	727	4.4	10.4	48	-3.9	8.9	340	-15.8	9.3
- 방송국용 기기	127	8.4	1.8	10	-9.2	1.8	64	-10.5	1.7
○ 영상 및 음향기기	562	21.7	8.0	47	5.4	8.7	275	-9.0	7.5
- 영상기기	160	-14.3	2.3	12	6.8	2.2	76	-13.1	2.1
- 음향기기	183	11.7	2.6	13	-8.6	2.5	90	-10.2	2.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0	16.6	1.9	14	28.8	2.6	61	-3.8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166	13.0	31.0	182	-2.7	33.8	1,272	1.7	34.6
- 가정용 기기	612	6.5	8.8	48	-10.1	8.8	336	-9.2	9.1
- 사무용 기기	35	25.8	0.5	3	-16.1	0.5	18	-7.0	0.5
- 의료용 기기	396	9.0	5.7	35	9.1	6.5	238	6.1	6.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7	2.3	4.4	26	1.0	4.9	183	5.8	5.0
- 전기 장비	795	22.2	11.4	69	-3.9	12.7	482	6.8	13.1
· 건전지 및 축전지	248	53.8	3.5	24	11.3	4.4	178	36.7	4.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93,456	11.6	100.0	15,739	-9.9	100.0	102,199	-4.8	100.0
○ 전자부품	102,999	13.9	53.2	8,124	-13.8	51.6	52,530	-8.5	51.4
- 반도체	64,471	18.2	33.3	5,007	-15.5	31.8	33,808	-5.9	33.1
- 디스플레이 패널	7,828	2.8	4.0	567	-19.0	3.6	3,314	-22.1	3.2
- 전자관	307	6.8	0.2	26	-7.3	0.2	174	-3.4	0.2
- 수동부품	12,360	6.6	6.4	1,027	-7.6	6.5	6,193	-12.4	6.1
- PCB	4,250	27.4	2.2	356	-13.6	2.3	1,962	-11.4	1.9
- 접속부품	12,783	4.4	6.6	1,067	-7.8	6.8	6,614	-7.6	6.5
- 기타 전자부품	999	26.5	0.5	72	-21.4	0.5	465	-20.2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562	9.4	8.0	1,342	-4.9	8.5	8,717	0.3	8.5
- 컴퓨터	1,168	12.3	0.6	112	0.7	0.7	772	27.4	0.8
- 주변기기	14,393	9.2	7.4	1,230	-5.3	7.8	7,945	-1.7	7.8
· 디스플레이장치	1,242	-7.2	0.6	101	-16.5	0.6	702	10.9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68	8.1	5.3	863	-5.6	5.5	5,563	-3.4	5.4
· 보조기억장치	143	-18.8	0.1	7	-49.4	0.0	61	-26.2	0.1
· 저장 매체	2,210	30.1	1.1	200	2.4	1.3	1,254	0.2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30	11.3	0.3	58	9.1	0.4	365	1.5	0.4
○ 통신 및 방송기기	4,601	-37.3	2.4	377	-5.1	2.4	2,595	6.5	2.5
- 통신기기	4,574	10.7	2.4	375	-5.1	2.4	2,581	6.6	2.5
· 유선통신기기	1,321	23.4	0.7	141	17.3	0.9	874	25.4	0.9
· 무선통신기기	1,607	-47.5	0.8	107	-28.3	0.7	867	-8.1	0.8
- 방송국용 기기	3,568	22.9	1.8	359	1.8	2.3	1,945	1.8	1.9
○ 영상 및 음향기기	9,276	53.9	4.8	776	-12.3	4.9	5,048	3.3	4.9
- 영상기기	2,156	-9.4	1.1	179	-8.4	1.1	1,127	-4.7	1.1
- 음향기기	540	12.0	0.3	47	-4.8	0.3	305	6.6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39	-4.0	1.6	194	-33.3	1.2	1,686	10.8	1.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1,017	10.3	31.5	5,120	-4.1	32.5	33,309	-2.0	32.6
- 가정용 기기	11,948	3.2	6.2	962	-9.0	6.1	6,363	-7.0	6.2
- 사무용 기기	413	-0.6	0.2	37	-8.8	0.2	228	0.2	0.2
- 의료용 기기	7,675	15.3	4.0	664	-1.3	4.2	4,420	7.5	4.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3,497	6.6	12.1	1,962	-5.1	12.5	12,828	-2.3	12.6
- 전기 장비	16,166	10.7	8.4	1,354	-1.4	8.6	8,616	-3.7	8.4
· 건전지 및 축전지	8,678	12.0	4.5	749	7.7	4.8	4,590	-4.7	4.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12,548	22.6	100.0	17,245	-5.7	100.0	120,471	3.0	100.0
○전자부품	66,186	39.1	31.1	5,502	-3.3	31.9	36,318	0.5	30.1
- 반도체	53,372	43.1	25.1	4,498	-1.5	26.1	29,409	1.3	24.4
- 디스플레이 패널	2,055	7.9	1.0	161	-4.2	0.9	1,010	-9.0	0.8
- 전자관	159	25.1	0.1	14	12.4	0.1	82	22.4	0.1
- 수동부품	1,779	25.9	0.8	133	-14.8	0.8	923	-8.9	0.8
- PCB	1,961	21.1	0.9	157	-5.2	0.9	1,091	-2.1	0.9
- 접속부품	5,644	25.3	2.7	437	-13.7	2.5	3,101	-1.4	2.6
- 기타 전자부품	1,216	75.6	0.6	101	-13.6	0.6	703	7.3	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33,350	18.9	15.7	2,557	-20.6	14.8	18,701	-4.0	15.5
- 컴퓨터	18,232	12.1	8.6	1,282	-32.1	7.4	10,138	-5.7	8.4
- 주변기기	15,118	28.2	7.1	1,276	-4.3	7.4	8,564	-1.8	7.1
· 디스플레이장치	1,970	3.9	0.9	173	-7.7	1.0	1,126	-3.3	0.9
· 프린터(부품포함)	4,967	28.0	2.3	365	-11.9	2.1	2,621	-3.8	2.2
· 보조기억장치	2,744	12.0	1.3	255	-2.0	1.5	1,556	-6.8	1.3
· 저장 매체	3,185	102.8	1.5	307	13.6	1.8	1,979	10.2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253	12.7	1.1	177	-12.6	1.0	1,282	-6.1	1.1
○통신 및 방송기기	38,978	5.9	18.3	2,759	-8.9	16.0	20,596	-2.3	17.1
- 통신기기	38,702	15.4	18.2	2,721	-9.7	15.8	20,407	-2.3	16.9
· 유선통신기기	10,050	19.8	4.7	868	-3.9	5.0	5,698	4.5	4.7
· 무선통신기기	26,736	6.3	12.6	1,685	-13.7	9.8	13,691	-4.2	11.4
- 방송국용 기기	3,448	26.7	1.6	344	22.8	2.0	2,236	21.4	1.9
○영상 및 음향기기	15,923	29.6	7.5	1,241	-7.5	7.2	9,416	12.8	7.8
- 영상기기	6,228	-8.9	2.9	438	-28.0	2.5	3,192	-9.5	2.6
- 음향기기	3,626	10.7	1.7	347	26.2	2.0	2,189	9.0	1.8
- 기타 영상음향기기	2,897	33.6	1.4	150	-22.2	0.9	1,988	72.0	1.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8,111	19.5	27.3	5,185	3.5	30.1	35,440	10.9	29.4
- 가정용 기기	16,120	5.3	7.6	1,256	-17.7	7.3	9,014	-0.6	7.5
- 사무용 기기	761	4.8	0.4	89	44.3	0.5	561	25.9	0.5
- 의료용 기기	8,646	15.8	4.1	796	9.5	4.6	5,483	15.7	4.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1,145	13.1	5.2	1,009	11.5	5.8	6,854	12.8	5.7
- 전기 장비	20,630	35.0	9.7	1,974	14.2	11.4	13,064	16.4	10.8
· 건전지 및 축전지	4,342	52.0	2.0	426	7.4	2.5	2,953	29.6	2.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906	10.3	100.0	229	-5.2	100.0	1,063	-12.1	100.0
○ 전자부품	2,306	12.3	79.3	186	-4.1	81.2	849	-12.3	79.9
- 반도체	2,101	15.9	72.3	172	-1.9	75.0	783	-10.5	73.7
- 디스플레이 패널	65	-35.8	2.2	5	-12.2	2.3	23	-30.6	2.2
- 전자관	0	-24.8	0.0	0	37.0	0.0	0	5.3	0.0
- 수동부품	38	-9.9	1.3	3	-29.3	1.2	13	-27.6	1.2
- PCB	70	6.1	2.4	4	-34.0	1.7	20	-31.0	1.9
- 접속부품	31	2.2	1.1	2	-22.0	0.9	10	-24.2	1.0
- 기타 전자부품	0	-3.2	0.0	0	-24.4	0.0	0	-21.7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9	5.2	8.6	16	-20.5	6.9	84	-14.6	7.9
- 컴퓨터	104	17.5	3.6	8	-0.2	3.4	35	-7.3	3.3
- 주변기기	145	-2.1	5.0	8	-33.7	3.5	48	-19.3	4.6
· 디스플레이장치	6	-7.0	0.2	1	0.0	0.2	2	-16.6	0.2
· 프린터(부품포함)	4	13.2	0.1	0	4.3	0.1	1	-10.4	0.1
· 보조기억장치	7	-13.9	0.2	1	-13.6	0.2	3	-12.2	0.3
· 저장 매체	87	-17.5	3.0	5	-34.6	2.2	25	-37.2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70.7	1.4	2	-45.7	0.7	17	29.2	1.6
○ 통신 및 방송기기	155	22.1	5.3	12	7.9	5.4	60	3.7	5.6
- 통신기기	140	24.8	4.8	11	7.6	4.9	54	4.7	5.1
· 유선통신기기	101	29.1	3.5	8	15.5	3.7	41	14.5	3.9
· 무선통신기기	39	14.9	1.3	3	-11.0	1.2	13	-17.3	1.2
- 방송국용 기기	15	12.4	0.5	1	10.2	0.5	6	-5.0	0.5
○ 영상 및 음향기기	55	-33.1	1.9	4	-14.6	1.8	19	-28.3	1.8
- 영상기기	49	-35.6	1.7	4	-14.7	1.6	17	-28.2	1.6
- 음향기기	5	-7.3	0.2	0	-18.0	0.2	2	-32.0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1	74.3	0.0	0	38.4	0.0	0	9.7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41	5.1	4.9	11	-7.1	4.7	51	-12.9	4.8
- 가정용 기기	27	2.1	0.9	2	-10.2	0.9	10	-13.9	0.9
- 사무용 기기	8	8.3	0.3	1	-5.4	0.3	3	-16.2	0.2
- 의료용 기기	7	3.9	0.3	1	6.3	0.3	3	-6.5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5	5.5	1.6	3	0.6	1.5	17	-6.7	1.6
- 전기 장비	54	6.2	1.9	4	-13.4	1.8	19	-17.7	1.8
· 건전지 및 축전지	13	31.2	0.4	1	-19.3	0.3	4	-23.4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35	6.7	100.0	103	-26.6	100.0	509	-24.2	100.0
○ 전자부품	1,157	7.6	75.4	75	-31.1	72.6	376	-27.3	73.8
- 반도체	1,042	8.8	67.8	67	-31.7	64.8	338	-27.5	66.4
- 디스플레이 패널	15	-18.6	1.0	1	-22.5	1.1	5	-21.8	1.0
- 전자관	0	-5.8	0.0	0	46.3	0.0	0	-0.1	0.0
- 수동부품	30	-10.9	1.9	2	-24.1	2.1	9	-35.1	1.8
- PCB	42	16.3	2.7	3	-29.5	2.6	14	-21.1	2.7
- 접속부품	26	-5.5	1.7	2	-23.4	1.9	9	-21.6	1.8
- 기타 전자부품	2	-4.9	0.1	0	-39.5	0.1	0	-30.6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0.0	6.0	6	-20.0	6.1	28	-29.3	5.4
- 컴퓨터	36	6.7	2.4	3	-27.9	2.5	10	-31.5	2.0
- 주변기기	56	-3.9	3.7	4	-13.2	3.6	17	-27.9	3.4
· 디스플레이장치	7	-9.3	0.5	1	-3.0	0.6	2	-23.0	0.5
· 프린터(부품포함)	4	-4.0	0.3	0	0.5	0.3	2	8.2	0.3
· 보조기억장치	10	-18.9	0.6	1	-17.2	0.6	3	-18.6	0.6
· 저장 매체	25	-5.4	1.7	2	-18.6	1.6	7	-40.1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	29.7	0.7	1	-7.9	0.5	3	-16.6	0.5
○ 통신 및 방송기기	85	1.9	5.6	6	-14.0	5.5	31	-7.5	6.0
- 통신기기	81	6.1	5.3	5	-15.0	5.1	29	-8.1	5.7
· 유선통신기기	25	4.9	1.6	2	2.5	2.0	9	-11.9	1.8
· 무선통신기기	55	6.6	3.6	3	-23.3	3.1	20	-6.2	3.9
- 방송국용 기기	5	-0.5	0.3	0	3.9	0.4	2	3.9	0.4
○ 영상 및 음향기기	22	-12.6	1.4	1	-20.6	1.4	8	-24.6	1.5
- 영상기기	14	-18.5	0.9	1	-29.7	0.8	4	-32.0	0.9
- 음향기기	6	2.0	0.4	0	9.7	0.4	2	-11.5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5.1	0.2	0	-21.9	0.1	1	-9.3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79	9.9	11.6	15	-4.5	14.4	67	-7.2	13.2
- 가정용 기기	43	6.6	2.8	4	0.8	3.9	16	-10.1	3.2
- 사무용 기기	2	24.5	0.2	0	-29.3	0.1	1	-21.8	0.1
- 의료용 기기	18	16.5	1.1	2	-0.3	1.5	8	10.1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72	6.2	4.7	6	-6.2	5.5	26	-10.4	5.1
- 전기 장비	43	16.7	2.8	3	-7.9	3.4	16	-5.0	3.2
· 건전지 및 축전지	17	39.3	1.1	1	11.6	1.4	7	14.0	1.3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22	11,168	-25.6	60,029	22.2	287	-71.4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	2,867	-35.6	4,298	-74.9	63	-72.0	
	3/4	2,824	-21.8	3,996	-68.6	90	-61.7	
	4/4	3,028	11.9	3,996	-53.1	46	-86.3	
	2023.1/4	3,026	23.6	4,334	-90.9	430	388.6	
	2/4p	2,547	-11.2	7,648	77.9	39	-38.1	
	직접구매 (수입)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22	88,573	35.2	296,493	-18.3	12,724	-37.6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		18,972	50.0	63,235	-4.6	3,107	-25.5	
3/4		20,429	68.9	72,027	26.4	2,997	-21.9	
4/4		24,874	14.8	83,723	-22.6	3,011	-45.6	
2023.1/4		28,757	18.4	89,519	15.5	3,246	-10.1	
2/4p		26,087	37.5	92,080	45.6	3,477	11.9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022	222.7	328.8	23.6	37.8	121.5	109.4	52.1	72.1	87.1	110.7	157.0	187.9
'22.1월	217.8	294.7	29.4	42.0	123.8	106.5	67.1	88.1	85.8	102.2	151.9	183.0
2월	212.4	286.1	27.1	39.3	118.8	102.1	63.4	83.6	81.3	99.3	151.2	180.6
3월	269.3	360.6	32.5	47.9	136.7	116.8	68.1	90.2	105.0	128.1	180.9	215.8
4월	218.4	294.6	27.8	42.0	128.7	111.1	81.6	106.5	87.0	105.8	153.7	179.0
5월	236.4	319.6	26.1	40.5	130.4	113.3	69.3	90.8	71.1	87.4	159.6	187.0
6월	255.3	347.7	20.4	33.3	124.5	109.2	56.1	75.6	73.7	94.4	148.6	180.6
7월	234.0	344.8	22.5	37.0	125.9	110.4	38.7	51.8	73.6	95.4	148.9	175.6
8월	227.7	339.8	21.9	36.6	122.5	108.8	33.8	46.3	82.8	107.1	152.8	185.0
9월	243.7	373.0	18.1	31.2	122.9	109.5	43.1	60.8	102.0	133.9	171.4	208.0
10월	191.7	332.4	19.2	33.1	114.5	102.9	33.8	51.6	108.7	142.4	155.6	185.4
11월	177.6	312.3	18.4	31.5	108.4	115.6	27.9	42.6	101.5	135.6	150.1	179.7
12월	188.0	335.9	19.1	32.6	101.3	108.0	42.7	65.2	72.2	96.4	159.9	193.6
'23.1월	122.4	237.7	15.8	27.3	98.5	104.8	22.4	34.2	84.6	113.1	127.7	151.6
2월	122.9	244.5	17.5	30.3	92.3	98.4	21.4	33.7	67.3	89.5	143.3	171.5
3월	177.0	358.0	17.7	30.2	112.0	119.4	29.5	46.5	65.2	86.4	152.3	182.1
4월	128.8	290.8	17.8	29.9	94.7	100.7	20.5	32.3	63.2	83.7	134.6	157.0
5월	152.0	345.4	19.8	32.8	109.3	116.4	29.2	47.3	70.5	92.4	142.8	167.9
6월	183.8	422.8	17.9	29.1	109.1	116.3	24.7	40.2	65.2	85.3	149.0	177.8
7월	155.1	358.6	20.5	33.1	111.9	119.6	25.5	41.3	70.4	91.6	138.3	163.3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022	204.2	298.7	35.2	51.9	131.2	137.5	171.4	178.0	135.2	167.3	144.5	144.9
'22.1월	187.8	263.0	46.4	51.4	137.2	140.9	239.5	243.6	127.7	152.2	135.4	132.4
2월	180.3	252.5	41.2	48.0	121.0	124.0	182.9	186.1	120.1	142.9	131.0	126.8
3월	197.5	276.5	37.9	45.9	138.2	141.8	194.3	199.2	154.8	184.6	150.8	146.1
4월	186.1	261.6	37.1	47.0	138.9	142.8	172.8	178.2	137.3	167.7	150.6	146.4
5월	196.7	277.8	38.2	52.0	136.4	143.8	166.4	172.3	142.8	176.6	141.9	140.0
6월	218.6	309.2	33.6	50.0	141.0	148.9	145.1	151.1	126.8	156.5	148.5	147.9
7월	220.4	327.0	28.5	44.9	135.5	143.7	170.6	178.5	122.9	151.7	149.1	149.8
8월	220.6	328.2	35.0	58.4	132.5	140.5	148.3	154.1	156.6	195.8	143.8	145.8
9월	216.0	323.9	31.8	55.5	132.3	140.6	183.8	193.4	121.1	152.0	135.5	138.3
10월	215.7	337.9	30.8	55.4	130.8	137.7	153.7	162.4	206.4	260.4	142.2	146.3
11월	224.8	346.2	30.2	55.2	119.9	126.1	154.5	162.1	107.2	137.8	141.6	148.3
12월	186.3	285.2	31.3	58.4	110.9	117.3	144.6	150.6	98.8	127.1	163.6	169.6
'23.1월	168.1	264.0	38.9	73.6	117.0	123.2	209.2	216.3	153.6	198.2	153.1	156.6
2월	160.3	252.8	32.1	60.6	104.7	109.3	203.4	209.1	109.9	143.2	121.4	123.9
3월	177.0	283.3	43.1	80.3	115.3	120.4	157.1	160.9	111.1	145.2	150.1	153.5
4월	155.5	258.4	36.7	67.5	102.4	107.8	122.5	125.8	100.0	129.6	143.7	146.5
5월	164.6	278.2	30.5	55.7	103.9	109.4	131.8	135.4	104.3	135.5	136.8	140.0
6월	175.0	296.0	32.1	58.3	108.8	115.8	121.6	125.9	106.3	137.8	146.3	149.9
7월	168.7	287.0	34.3	60.8	113.2	122.3	135.8	140.4	137.6	178.4	142.2	145.0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총괄 책임 임진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정책단장)
과제 책임 허창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장)
참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조성선, 이효은, 도승희, 고은영, 유영신, 반치호, 최동렬, 임양섭,
장예지, 김채리, 김도현, 윤종혁
위촉연구원 최경석, 이유리, 이유경

월간 ICT 산업 동향 2023-9호

발행일 : 2023년 9월 27일
저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발행인 : 전성배(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발행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전화 : 042) 612-8240, 팩스 : 042) 612-8209
홈페이지 : www.iitp.kr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